

정 이 화 교수 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 연구

- 피콜라의 파멸과 흑인공동체와의 상호작용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영 어 영 문 학 과

박 미 선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 연구

- 피콜라의 파멸과 흑인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정 이 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 미 선

인 준 서

박미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토니 모리슨은 1970년에 발표한 첫 작품 『가장 푸른 눈』에서 미국사회내의 흑인 특히, 가난한 흑인소녀의 정체성 탐구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나타낸다. 상처받기 쉬운 흑인소녀의 정체성 상실의 과정을 통해 모리슨은 한 개인의 과멸뿐 아니라 미국 내의 흑인여성이 올바른 정체성확립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가장 푸른 눈』은 1940년대 한 흑인가정을 배경으로 한 흑인소녀 피콜라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나아가는데 있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과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어린 흑인소녀 피콜라가 불행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도리어 그 비극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피콜라가 인종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과멸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백인 지배사회의 억압과 흑인 공동체의 분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흑인 노예제도는 백인 중심의 규범이며 백인 우월주의가 만들어낸 인류 최악의 폐단이다. 이러한 노예제도하에서 흑인은 백인에 의해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장소의 정체성, 문화의 정체성, 언어의 정체성을 빼앗기며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강한 혐오를 느낀다. 노예제도부터 시작된 흑인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자신의 흑인성을 벗어버리려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며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삶의 비참함과 혐오를 투사한다.

피콜라의 자아부정은 보모 대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모의 부정적인 정체성은 딸인 피콜라에게도 그대로 답습되어 나타난다. 모리슨은 그들 역시 노예제도에 의한 희생자이며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어온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부정의 결과임을 암시한다. 피콜라에게 가해진 폭력은 백인에 의한 폭력성보다 백인의 규범을 내면화한 흑인공동체라는 매개체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흑인 공동체는 다른 어떤 백인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파괴적으로 피콜라를 파멸시켜 나간다.

본 논문에서는 피콜라를 가장 강하게 본능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흑인 사회로부터 그녀가 철저히 차별당하고 파멸되는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려 한다. 피콜라에게 가해진 육체적, 정신적 폭력의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피콜라의 불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금 해석하려 한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은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을 당당히 바라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모리슨은 피콜라의 비극의 해결책과 긍정적인 대안 역시도 흑인사회 내에서 찾으려고 시도한다. 백인 중심의 가치관의 억압과 백인에 의해 교묘히 조장된 흑인들 사이의 차별 속에서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위협적인 패턴의 악순환을 끊고 흑인공동체가 과거의 비극을 승화하여 새롭게 변화하기를 소망한다. 모리슨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흑인 공동체의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모리슨은 흑인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동시에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애정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삶을 탐색하는 것이 건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피콜라의 비극을 통해 흑인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을 제시하고 해야 하는 일을 제시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모리슨이 자신의 처녀작 『가장 푸른 눈』을 통하여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1. 주인공 피콜라와 흑인사회내의 폭력성 분석	17
1) 어린이들의 사회적 폭력성	17
2) 어른들의 사회적 폭력성	26
3) 가정 내의 폭력성	41
III. 결론	67
1. 흑인사회의 정체 회복	67
2. 흑인사회의 미래	82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토니 모리슨(Morrison, Toni)은 1993년 12월 17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African-American)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명성을 인정받은 작가이다. 그녀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사회 내의 흑인들의 삶과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추구 과정을 문제 삼아 끊임없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작품들을 쓰고 있다. 그녀는 특히 성과 인종, 그리고 계급의 억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내 흑인여성으로서의 긍정적인 흑인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흑인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리슨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인종간의 문제나 남녀차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흑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범주 내에서 주변의 다양한 영향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작가다.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 1970)의 “작가후기”(Afterword)에서 모리슨은 그녀의 집필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모리슨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이웃에 살고 있던 한 흑인소녀가 푸른 눈을 가지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척 했었지만 그녀의 부질없는 소망에 모리슨은 측은함보다는 분노를 느꼈고 이 소설을 통해 주인공 흑인소녀 피콜라(Pecola)가 왜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채 푸른 눈을 가지겠다는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모리슨은 이 어린 흑인 소녀의 욕망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인종적인 자기혐오’(racial

self-loathing)였다고 지적한다.

누가 그녀에게 이야기해준 걸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별종이 나올 거라고. 그녀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부족하다고, 아름다움을 채는 저울로 그녀를 재면 무게가 덜 나간다고 누가 말한 걸까? 이 소설은 그녀를 추하다고 정의내리는 그런 시선을 쫓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Who told her? Who made her feel that it was better to be a freak than what she was? Who had looked at her and found her so wanting, so small a weight on the beauty scale? The novel pecks away at the gaze that condemned her. (163)¹⁾

모리슨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룹의 왜곡된 시선(gaze)이 마이너리티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푸른 눈』을 썼다고 밝힌다. 본 소설에서 모리슨은 어린 흑인소녀 피콜라의 정신적 분열을 통해 왜곡된 시선을 내면화했을 때 발생하는 참담한 결과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식을 자체적인 여과 없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했을 때 한 어린소녀가 어떻게 반응·적응·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인 것이다. 피콜라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피콜라는 열등감으로 고통 받게 되는데 이는 인종적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수 없는 어린

1) Morrison, Toni. "Afterword to the 1994 Edition of *The Bluest Eye*."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이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내재화시켰을 때 오는 파괴적인 영향력에 한 예가 되는 것이다.

각 인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인종 그룹에서 흔히 나타나듯 문화적/인종적 약점을 우수팡스럽게 꼬집는 것에 대해 맞서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의식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이 곧 인종적 인미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을 내면화했을 때의 파괴적 영향력이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의 열등감을 초래할 가능성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이것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인종전체를 악마로 보는 끔찍한 의식이 흑인사회의 가장 어린 구성원인 어린 소녀에 마음속에 어떻게 뿌리 내리는가에 나의 초점을 맞추었다.

The assertion of racial beauty was not a reaction to the self-mocking, humorous critique of cultural/racial foibles common in all groups, but against the damaging internalization of assumptions of immutable inferiority originating in an outside gaze. I focused, therefore, on how something as grotesque as the demonization of an entire race could take root inside the most delicate member of society: a child; the most vulnerable member. (210)

소설의 주인공 피콜라는 이제 막 월경을 시작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드려는 어리고 저소득계층의 흑인소녀이다. 외적으로 보면 다른 또래의 흑인소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피콜라는 그녀가 아주 못생겼다는 의식을 서서히 키워간다.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흑인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그녀의 가족구성원들 마저도 그녀가 못생기고 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피콜라는 자신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자기가 속한 흑인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푸른 눈(the bluest eye)”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피콜라는 드디어 푸른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마을의 주변과 쓰레기더미를 헤매고 다니는 정신이상자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리슨은 피콜라의 비극을 통하여 최하계층의 흑인소녀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인종차별과, 사회적인 가치관이 그녀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리슨은 『가장 푸른 눈』에서 피콜라의 비극이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흑인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따라서 모리슨은 단순히 피콜라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고 그 원인을 찾고자한다. 모리슨은 우선 ‘희생자’ (victim)가 ‘희생시키는 자’ (victimizer)된다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이런 위협적 패턴의 끈을 끊고 흑인공동체가 과거의 비극을 승화하여 새롭게 변화하기를 소망한다. 왜냐하면 모리슨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흑인 공동체의 건설적 미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보이기 때문이다. 피콜라의 비극을 통해

흑인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을 제시하고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모리슨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리슨의 의도를 데이비스(Cynthia A. Davis)²⁾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모리슨이 현존하는 흑인 사회의 어려운 상황이나 부인할 수 없는 흑백간의 대립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품의 초점을 흑인사회 내에 철저히 국한시킴으로써 인종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이 오히려 흑인 문제에 대해 더욱 생생한 고발의 효과를 낳게 된다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즉, 모리슨은 흑백의 대조 속에서 흑인이 백인의 의해 차별 받는 상황을 강조하는 방법 대신 흑인의 삶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가 인종적 차별의식의 구체적 양상을 다양하게 재현함으로써 그 모든 인간적 특질에도 불구하고 백인 사회가 흑인 사회에 던지는 침묵과 무시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전체적인지를 드러낸다. 그 결과는 보다 절실하게 반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리슨은 백인의 삶 속에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흑인의 모습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녀는 독자를 흑인 공동체 속에 열중하여 흑인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이고, 생생함, 다양한 양상의 세계 대해 무지한 백인사회에 더욱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Morrison avoids the picture of the black person “invisible” in white life. Instead, she immerses the reader in the black

2) Davis, Cynthia. A “Self, Society, and Myth in *Toni Morrison’s Fiction*.” *Contemporary Literature* 24, No. 3 (Summer 1982): 323-42.

community; the white society's ignorance of that concrete, vivid, and diverse world is thus even more striking. (Davis 7)

필자는 우선 흑인문학인 『가장 푸른 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예제도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노예제도는 인류 역사상 자행된 가장 잔인한 사회제도이다. 서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어느 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낯선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노예’라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된다. 강제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백인으로부터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하며 한명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또한 살던 장소와 유리되는 장소의 정체성, 아프리카와는 이질적인 새로운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화의 정체성마저도 박탈당하게 된다.

노예제의 흑인들은 노예주인 백인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장소의 정체성, 문화의 정체성, 언어의 정체성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 노예는 백인 남성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도구가 된다. 흑인 남성은 백인 남성으로부터 동족인 흑인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흑인 여성 노예는 백인 남성들에 의한 강간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노예제 사회 속에서 흑인들은 자신의 존엄성, 자존심을 지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흑인 여성과 흑인 남성이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가장 큰 이유는 플랜테이션(plantation)체제를 확장시키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서아프리카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졌던 대규모에 익숙

한 아프리카인들의 기술과 체력은 백인 지배계급에게는 가장 이익이 남는 노동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일꾼으로서, 어머니로서, 노동의 재생산 도구로서, 강요된 성행위의 상대자로서, 여성노예는 노예체제가 성공하는 기반이었다. (박영재 55)³⁾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흑인들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남북전쟁은 노예의 해방을 위한 인도적인 전쟁이 아니라, 북부의 산업자본과 남부의 농업자본의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 해방된 흑인 노예들에게 돌아온 것은 자유민이라는, 선거권은 없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신분뿐이었다. 오히려 흑인들은 미국사회가 북부의 산업자본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북부의 임노동자가 되거나 남부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두 상황 모두 해방된 노예들에게는 열악한 생존환경이었다” (박영재 56-57).

해방된 흑인 노예들은 도시의 슬럼가의 노동자나 소작인이 되어 최하계층의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며 신체적 차이와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인종적인 차별을 받게 된다. 더욱이 신분상으로 해방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아무런 기반도 갖추지 못했던 흑인들은 가난 때문에 오는 고통까지도 겪게 된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흑인들은 흑인으로 산다는 것에 강한 혐오를 느끼고 자신의 피부색과 인종을 혐오하는 왜곡된 의식을 가지게 된다. 노예제도

3) 박영재, 「성, 인종, 계급, 그리고 흑인여성해방문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부터 시작되는 흑인성(blackness)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흑인으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대신 흑인성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하여 타인을 희생양(scapegoat)으로 삼아 흑인의 삶의 비참함과 혐오를 투사하는 것이다.

노예제도는 백인 중심의 규범이며 백인우월주의가 만들어낸 폐단이다. 이러한 노예제도 속에서 흑인은 백인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정체성도 박탈당한 희생자가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희생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모리슨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버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흑인 공동체가 건설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

『가장 푸른 눈』은 미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백인 가족인 「딕과 제인 이야기」(「Dick and Jane primer」)⁴⁾로 시작된다.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초록색과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빨간색 문이 있습니다. 그 집은 예쁩니다. 여기에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딕 그리고 제인이 초록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제인을 보세요. 제인은 붉은 옷을 입고 있네요. 제인은 놀고 싶어합니다. . . .

4) 「딕과 제인 이야기」라는 독본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사용했음직한 교과서로서, 이상화된 미국가정의 이야기를 세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 나열한다. 첫 번째는 문법의 규칙이 지켜진 표준영어 표기 형태이고, 두 번째는 대문자와 구두점이 제거된 모습이고, 세 번째는 대문자는 물론, 단어 사이의 공간과 구두점이 모두 제거된, 이른바 단어의 나열상태이다. 결국 독본서의 서술전략은 백인중심의 텍스트와 피콜라와 같은 흑인의 실상을 대비시킴으로써, 사회가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규범에 내포된 인종과 계급, 그리고 성별의 모순을 보여주어 그것을 흑인의 실상에 맞게 다시 쓰는 전략이다. (신재민 172)

Here is the house. It is green and white. It has a red door. It is very pretty. Here is the family. Mother, Father, Dick, and Jane live in the green-and-white house. They are very happy. See Jane. She has a red dress. She wants to play. . . . (3)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초록색과 흰색으로 칠해져있습니다 빨간 색 문이 있습니다 그 집은 예쁩니다 여기에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딕 그리고 제인이 초록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제인을 보세요 제인은 붉은 옷을 입고 있네요 제인은 놀고 싶어합니다. . . .

Here is the house it is green and white it has a red door it is very pretty here is the family mother father dick and jane live in the green and white house they are very happy see jane she has a red dress she wants to play. . . . (3)

여기에집이있습니다그집은초록색과흰색으로칠해져있습니다 빨간색문이있습니다그집은예쁩니다여기에가족이있습니다엄마아빠 딕그리고제인이초록색과흰색으로칠해진집에서살고있습니다그들은 매우행복합니다제인을보세요제인은붉은옷을입고있네요제인은놀고 싶어합니다.

Hereisthehouseitisgreenandwhiteithasareddooritisveryprettyhereisthefamilymotherfatherdickandjaneliveinthegreenandwhitehousetheyareveryhappyseejanesheshasareddressshewantstoplay. . . . (3) ⁵⁾

5) 이 논문의 텍스트로 Toni Morrison, *The Bluest Eye* (New York: A Plume Book, 1994)를 사용하였

처음 문장은 미국의 이상적인 백인 중상류층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백인 소녀 제인이 아름다운 집에서 다정한 부모, 형제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습이 질서정연한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푸른 눈』에서는 피셔 가족(Fisher family)을 의미한다. 이는 백인의 삶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미(美), 기득권, 부로 상징되는 세계이다. 부를 획득한 많은 흑인들이 편입되고 싶어 하는 가상의 우상화된 백인문화를 보여준다.

구두점을 없앤 둘째 문장은 첫 번째의 문장에 비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질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종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클라우디아(Claudia)의 집인 맥티어 가족(Macteer family)을 상징한다. 비록 가난하지만 가족을 보호하려는 책임의식과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는 가족양상이다. 외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독립적인 흑인 자아를 보여준다.

셋째 문장은 문장의 질서가 파괴되어 있고 문장의 의미마저도 알아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형태이다. 이것은 흑인으로서의 자기애를 상실하고 지배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내면화한 결과 왜곡되고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는 피콜라의 가정인 브리드러브 가족(Breedlove family)의 모습을 나타낸다. 백인주류사회가 정형화시킨 미의 기준과 그들이 휘두르는 권한으로 주룩 들어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비극적인 가족양상이다. 브리드러브 가족은 백인의 시선을 저항의식 없이 내재화하여 붕괴된 흑인자아를 대표한다.

2. 이하에서는 본문 중에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클로트만(Phyllis Klotman)⁶⁾은 모리슨이 세 가지 유형의 가족을 병치시킴으로써 흑인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백인 중심 이데올로기가 흑인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이며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흑인 아이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흑인의 현실과 유리된 삶이고 백인들은 은연중에 백인의 가치관을 내재화하도록 사회적, 문화적으로 강요하며 흑인의 정체성 정립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버전은 피셔가족으로 대변되는 흑인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백인 가정이다. 두 번째는 가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와중에서도 자식에게 애정을 보여주는 맥티어 부부와 클라우디어, 프리다의 가정이다. . . 그러나 세 번째 버전에서 띄어쓰기 없이 계속되는 “딕과 제인”의 이야기는 브리드러브가 정의 삶을 의미한다. 그들의 아이인 피콜라는 이러한 왜곡된 세상에 살며 마침내 그녀를 파멸시킨다.

The first [version] is clearly that of the alien white world (represented by the Fisher family). The second is the life style of the two black MacTeer children, Claudia and Frieda shaped by poor but loving parents trying desperately to survive the poverty. . . The Breedlove's lives, however are like the third—the distorted run-on-version of “Dick and Jane” and their child Pecola lives in a misshapen world which finally destroys her. (Klotman 123)

6) Klotman, Phyllis R. “Dick-and-Jane and Shirley Temple Sensibility in *The Bluest Eye*.”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Volume 13, Issue 4.(Winter, 1979) : 123-25.

이처럼 모리슨은 ‘제사’로 사용된 문장의 문법적 형태를 통하여 미국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제시하는 백인 중산층 가정의 모습과 흑인 가정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대조시켜 학교 교육이 제시한 삶의 양태나 가치관과 흑인의 삶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풍요로운 가정의 강한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는 피콜라의 집에서는 무능하고 술만 마시는 아버지와 무기력한 어머니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피콜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실제의 삶과 이상적으로 제시된 「덕과 제인 이야기」의 삶 속에서 괴리를 체득하고 열등감을 내면화하기 시작한다.

비극적인 것은 피콜라의 자아 붕괴의 과정은 이미 그녀가 속해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피콜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상적인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며 특히 생계를 짊어준 어머니인 폴린(Pauline)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 피콜라의 가정의 피폐한 상태는 그녀의 가족이 살고 있는 낡고 허름한 집의 모습에서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들의 집은 길거리 한 모퉁이에 버려진 집으로 주변의 어떠한 건물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차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그 가게를 허물지 않는지 의아해 하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외면한 채 지나칠 뿐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곳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이러한 곳에 사는 브리드러브 가족들은 서로의 추억이나 애정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지 못한다.

생기가 없고 사랑이 없는 피콜라의 집에서 어머니 폴린과 아버지 출리(Cholly)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잦은 부부 싸움은 가족간의 유대를 깨뜨리며 그 속에서 어린 피콜라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스스로를 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은 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추하다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브리드러브 가족은 지배적인 백인 문화의 시선에 굴복하고 스스로를 추한 존재로 내면화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문득 그들이 추해 보이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될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건네 준, ‘추함’이라는 외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과 같았다. 주인님은 말했다. “너희는 추한 족속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말을 받아칠 만한 것이 없다. . .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손에 추함을 받아들고, 망토처럼 그것을 걸치고 세상을 배회했다.

Then you realized that it came from conviction, their conviction. It was as though some mysterious all-knowing master had given each one a cloak of ugliness to wear, and they had each accepted it without question. The master had said, “You are ugly people.” They had looked about themselves and saw nothing to contradict the statement. . . “Yes,” they had said. “You are right.” And they took the ugliness in their hands, threw it as a mantle over them, and went about the world with it. (39)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 새미(Sammy)는 아버지의 머리를 내려치며 욕도 하고 가출로 그의 불안을 해소 할 수 있지만 반면 어린 여자아이인 피콜라는 오빠처럼 도망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라져서 죽어 버리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 피콜라는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행한 가정으로부터 사라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된다. “제발, 저를 사라지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눈을 감고 몸의 부분들이 하나씩 없어지기를 기다린다. (45). 이러한 욕망을 갖는 것 자체가 피콜라의 가정이 어린 피콜라가 흑인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하기도 전에 그녀의 자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미한다.

피콜라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서로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푸른 눈’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다. 피콜라에게 두 눈은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는 눈이며 늘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어머니를 봐야하는 눈인 것이다. 피콜라는 언제나 이러한 불행을 봐야하는 두 눈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푸른 눈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결국 피콜라가 원했던 건 가족간의 사랑과 관심이었지만 그녀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이런 부정적인 가족 환경은 피콜라가 성장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만약 피콜라가 지금과는 다르게, 예쁘게 보였더라면 출리도 달랐을 것이고, 브리드러브도 그랬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피콜라의 예쁜 눈을 봐. 예쁜 눈이 보는 앞에서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If she(Pecola) looked different, beautiful, maybe Cholly would be different, and Mrs. Breedlove too. Maybe they'd say, "Why, look at pretty-eyed Pecola. We mustn't do bad things in front of those pretty eyes."(45)

‘푸른 눈’은 백인의 미의 기준이며 백인의 규범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흑인에게도 강요되는 보편화된 미의 기준이다. ‘푸른 눈’으로 대표되는 백인 중심의 가치는 흑인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다. 피콜라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푸른 눈을 갈망하지만 흑인으로서의 자긍심만 상실할 뿐이다.

브리드러브 부부는 「딕과 제인 이야기」에 나타난 백인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미의 기준을 아무런 저항의식 없이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추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흑인으로서의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딸에게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피콜라의 불행은 그녀가 태어난 가정에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피콜라의 파멸의 과정을 가정환경과 나아가 그녀의 주변 환경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피콜라는 단일한 원인으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하여 자아가 파멸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 이웃 아줌마들, 가게 주인아저씨, 동네 점쟁이 아저씨까지 피콜라에게 어떠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 우선 피콜라가 불행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도리어 그 비

극의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안이 모리슨에 의해 어떻게 제시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모리슨이 작가후기에서 밝혔듯이 『가장 푸른 눈』을 쓴 의도는 한 흑인의 불행을 가지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며 ‘가없는 아이’라며 동정을 가하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데이비스의 분석처럼 모리슨은 흑인들의 삶의 모습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가 백인사회가 흑인에게 가하는 폭력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들어내고, 흑인사회의 각성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모리슨이 흑인 여성들 간의 자매애(sisterhood)와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강조해 희망을 제시하려고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하려고 한다.

II. 본론

1. 주인공 피콜라와 흑인사회내의 폭력성 분석

1) 어린이들의 사회적 폭력성

저명한 모리슨 비평가, 마이너(Madonne M. Miner)⁷⁾는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을 읽으면서 마치 그녀 자신이 1941년 오하이오(Ohio)주의 로레인(Lorain)에 있는 브로드웨이 지방 남쪽 끝에 버림받은 상점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피콜라가 깡통, 타이어와 잡초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11살 흑인소녀가 되어 광활한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Miner 176)

마이너는 『가장 푸른 눈』이 흑인소녀 피콜라의 정신 분열의 과정을 통해 백인가부장 문화의 규범과 남성폭력의 파괴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너에 의하면 소설 속에서 남성들에 의한 강간, 광기, 침묵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오며 백인 문화와 남성들의 규범이 보여주는 폭력성으로 인하여 피콜라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해 가며 마침내 그녀의 정체성은 파괴되어 침묵하고 끝내는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서 정신적 분열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7) Miner, Madonne M. "Lady No longer Sings the Blues: Rape, Madness, and Silence in *The Bluest Eye*". *Conjuring: Black Women, Fiction, and Literary Tradition*. Ed. Marjorie Pryse and Hortense J. Spillers. Bloomington: Indiana UP, 1985.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은 아직 흑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주인공 피콜라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루며 소설의 주인공은 아직 어린소녀로서 흑인 또래간의 상호관계는 피콜라를 설명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이 소설은 어른의 시선으로 흑인소녀의 비극을 바라보는 소설이 아니라 어린 클라우디어가 그 또래 집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한 인간의 사회화의 과정은 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형상화된다. 그러나 학교라는 집단은 단순한 어린아이들의 모임이 아닌 어른들의 세계를 미시적으로 축소하여 재현해 놓은 ‘소우주’ (Microcosm)라는 사실이다. 그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생활에서 아이들은 각자 어른들의 행동과 말을 재현하고 반복하고 어른들의 상호관계 및 차별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오크워드(Michael Awkward)⁸⁾는 피콜라의 분열에 참여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희생양’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노예제도부터 시작되는 흑인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흑인성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흑인의 삶의 비참함과 혐오를 투사하는 것이다. 오크워드는 “그들은 죄의식과 함께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여러 부정적인 측면들을 타인에게 투사(projection)한다. 부정적인 흑인성이 외부로 투사되고 희생양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희생양을 통해 흑인들의 죄의식과 부정성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소설을 통해서 희생양의 테마는 폭력적인 의식을 가지고 제럴다인의 고양이, 밥(Bob)의 개, 피

8) Awkward, Michael. “The Evil of Fulfillment: Scapegoating and Narration in *The Bluest Eye*.”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콜라를 통하여 자신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Awkward 82)

희생양기제는 한 집단의 “승인된 가치들”을 획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개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생기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스스로나 또는 공동체의 필요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Scapegoating results from the necessity for the self and/or the community to rid itself of the “guilt-feeling” inherent in any individual or group failure to attain the “acknowledged values” of that group. (Awkward 82)

피콜라는 다른 11살의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매일 학교를 다니며 선생님에게는 애정을 받고 반 친구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저 평범한 여자아이이다. 그러나 그녀의 학교생활은 만족할 만 하지 않다. 학교에서는 그녀만 짝이 없다. 알파벳순서로 앉기 때문에 피콜라는 짝이 없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늘 교실 앞쪽에 혼자 앉는다. 선생님들은 한번도 피콜라를 보지 않고 학급의 전체의 이름을 부를 때만 피콜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피콜라는 그녀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흑인 아이의 놀림거리가 된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골릴 때 “바비는 피콜라 브리드러브를 사랑한대요!”(46)라는 말에 다른 학생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모욕을 당하는 남학생은 화를 내는 것이다.

피콜라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그들의 흑인성에 대한 미움을 피콜라에게 투

사한다. 어느 날 학교 친구들인 베이 보이와 친구들은 피콜라를 둘러싸고 괴롭히기 시작한다. “깜둥이, 깜둥이, 네 아버지는 발가벗고 잠을 자. 깜둥이, 깜둥이, 네 아버지는 발가벗고 잠을 자. 깜둥이……”(“Black e mo. Black e mo. Yadaddsleepsnekked. Black e mos Black e mos ya dadd sleeps nakked. Black e mos...” 65)라고 놀리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불구덩이의 던질 재물을 준비하듯이 피콜라를 둘러싸고 자신의 친구이지만 자신보다 못생기고 검은 피콜라를 제물로 삼아 놀리고 비웃는 것이다.

오크워드는 흑인 아이들이 피콜라를 놀리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그들의 희생양과 비슷한 경험과 가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추한 모습과 숨기고 싶은 마음을 피콜라에게 투사하여 미움을 발산한다”(Vickroy 201, 재인용)⁹⁾. 피콜라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장난은 자기 혐오적인 것이다. 그들이 놀리는 내용은 피콜라 뿐만 아니라 흑인인 자신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피콜라를 놀리는 자신들도 검은 피부의 흑인이고 그들의 아버지 역시 잠잘 때는 옷을 벗고 자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콜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잠버릇을 가지고 놀리는 것이다. 이처럼 피콜라는 같은 학교의 친구로부터 그들의 흑인성을 속죄하기 위해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피콜라는 학교라는 또래 공동체에서 모든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차별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흑인성에 대한 수치심과 불만을 자기보다 약하고 더욱 검은 피콜라에게 투사함으로써 자신들은 잠시나마 심리적인 위안을 찾게 되고

9) Vickroy, Laurie. “The Politics of Abuse: The Traumatized Child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and *Marguerite Duras*.”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반면에 흑인 공동체내의 다른 흑인으로부터 받은 모욕과 혐오를 저항하지 못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지 스스로가 “흑인 공동체내에서의 악의 그림자” (Furman 186)¹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피콜라가 학교의 또래 남자친구들에게 따돌림과 미움을 받고 있을 때 모린 필(Maureen Peal)¹¹⁾이 등장한다. 마이너는 백인과 남성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분열된다고 주장했지만 모린은 피콜라가 『가장 푸른 눈』에서 만나는 가장 백인 여자아이에 가까운 여자 또래친구이다. 새로 전학 온 모린은 흑인아이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금지옥엽으로 자란 백인소녀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아이만큼이나 부자였고 얼굴이 예쁜 혼혈소녀다. 모린은 온 학교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격려의 웃음을 흘리며 모린을 부르고 흑인 남자 아이들도 함부로 그녀에게 장난을 치거나 말을 걸지도 못하는 피부색이 밝은 소녀인 것이다. 이는 학교의 흑인 친구들과 선생님 역시 백인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하나의 예다. 모린은 혼혈아지만 가장 백인에 가까운 소녀이며 부를 가진 모린은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된다.

흑인 남자아이들 놀림에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피콜라가 놀림에서 벗어나는 계기는 모린의 등장 때문이다. 마치 모린 앞에서는 여자아이들을 때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피콜라를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모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콜라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 하자 그때까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클라우디어는 갑자기 모린에

10) Furman, Jan. “Black Girlhood and Black Womanhood: The Bluest Eye and Sula.”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11) Maureen Peal의 경제적인 부를 가진 미국 내 혼혈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려면 Mbalia, Doreatha D. “*The Bluest Eye*: The Need for Racial Approbatio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된다. 모린이 잠시나마 피콜라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소년들의 놀림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한 호기심이었을 뿐이다. 실재로는 흑인 공동체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린은 같은 반 친구인 피콜라의 고통을 함께하기 보다는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유지하고 싶고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피부색이 검은 흑인과 구별, 차등을 두고 싶을 뿐이다. 그 호기심이 충족 되었을 때 모린은 “난 예뻐! 그리고 너희들은 못 생겼어! 검둥이들. 못생긴 검둥이들” (73) 라고 소리치며 곧 자신은 다른 흑인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떠나는 것이다. 따라서 피콜라에게는 소년들의 놀림보다는 모린에게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정신적 외상은 피콜라가 소설을 통 통해서 가장 비참한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된다.

피콜라는 우리와 약간 떨어져 모린이 달아난 곳을 멍하니 바라 보았다. 날개를 접은 새처럼 자신 속으로 움츠리며. 나(클라우디아)는 피콜라가 받은 고통 때문에 화가 났다. 나는 피콜라의 기를 살려주고 싶었고 고통을 없애주고 싶었다. 구부정한 등에 막대기를 박아 똑바로 서게 해주고 길 위에다 그녀의 비참함을 모두 뺏어내게 하고 싶었다.

Pecola stood a little apart from us, her eyes hinged in the direction in which Maureen had fled. She seemed to fold into her, like a pleated wing. Her pain antagonized me. I want to open her up, crisp her edges, ram a stick down that

hunched and curving spine, force her to stand erect and spit
the misery out on the streets. (73-74)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모린에게 반응하는 피콜라의 모습이다. 자신들의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모린의 말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같은 흑인소녀 클라우디어다. 반면 피콜라는 멍한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다. 피콜라는 날개를 접은 새처럼 자신을 움츠리며 이 모든 부당한 대우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모든 것을 내면화하고, 눈빛으로만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먼 훗날 피콜라의 친구인 클라우디어는 피콜라의 구부정한 등에 막대기를 박아 똑바로 서게 해주고 길거리에 자신의 비참함을 모두 뱉어내게 하고 싶었다고 회상한다.

피콜라와 같은 환경의 클라우디어는 독립적으로 모린의 우월감과 비열함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클라우디어는 모린의 피부색이나 눈빛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린을 아름답다고 하며 자신을 모자르다고 말하는 객관적인 평가의 저속함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두려워 할 것은 모린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닌 그녀를 아름답다고 만드는 사회적 시선들임을 자각한다. 그러나 클라우디어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백인사회의 미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을 부정하는 피콜라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을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사회적 구조를 직시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강한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

비결이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무엇이 모자랐던가? 그런 것이 왜 중요했지?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 정직하고 허영심이 없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했다. 우리는 우리 피부색이 편안했고 오감이 표현해 주는 새로운 느낌들을 즐겼으며, 우리의 지저분함에 감탄했고, 몸에 난 상처를 아꼈다. 이런 것들이 가치 없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질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 . .우리는, 모린 필이 적이 아니며 그렇게 미워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려운 것은 모린을 예쁘게 만들고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였다.

What was the secret? What did we lack? Why was it important? And so what? Guileless and without vanity, we were still in love with ourselves then. We felt comfortable in our skins, enjoyed the news that our senses released to us, admired our dirty, cultivated our scars, and could not comprehend this unworthiness. . . . Maureen Peal was not the Enemy and not worthy of such intense hatred. The Thing to fear was the Thing that made her beautiful, and not us. (74)

마이너는 피콜라의 또 다른 학교친구인 주니어의 예를 들며 남성의 폭력을 설명한다. 피콜라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주니어는 운동장을 혼자 걷고 있는 늘 친구가 없는 피콜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집에 있는 고양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학교 친구인 피콜라를 문 뒤에 가두고 얼굴에 고양이를 던지며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이 폭력은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고양이에게 빼앗긴 소년이 표현하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이며 자신보다 약한 소녀에게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쾌락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마이너에 의하면 주니어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신보다 더 연약한 소녀를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피콜라를 자신의 공간에 가두어 놓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남성으로서의 쾌락을 가진다. “남성의 영역은 여성의 치명적인 축소로 인하여 확장된다”(“Male reals expand as the female suffer an almost fatal contraction” 88).

주니어가 피콜라의 앞을 가로막았다. “못 가. 넌 죄수야.” 그는 말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만 단호했다. . . . 그는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방과 방사이로 가로막는 문밖으로 나가 문이 열리지 못하게 손으로 잡고 있었다.

Junior leaped in front of her(Pecola). “You can’t get out. You’re my prisoner,” he said. His eyes were merry but hard He pushed her down, ran out the door that separated the rooms, and held it shut with his hand. (90)

주니어는 피콜라에게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방안에 가두는 등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주니어가 고양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피콜라를 괴롭힐 때 그녀는 주니어를 향하여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니어를 육체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무기력하게 주니어

의 폭력성에 아무런 저항 없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자기와 고양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미약한 힘이지만 막아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피콜라는 함께 어울려 놀아야 할 또래집단의 친구들에게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된다. 그녀는 학교의 남학생들에게 집단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게 된다. 그 결과 피콜라는 타인의 시선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못생기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모린에게서 받은 심리적인 폭력으로 증폭되는 면을 보인다. 즉, 폭력의 형태는 단일하지 않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 어른들의 사회적 폭력성

마이너는 백인 문화의 규범과 백인의 규범을 내재화한 백인남성의 폭력성을 강조한다. 마이너는 백인의 규범과 남성의 규범을 이성, 언어, 존재로써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여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이성적이지 못한 광기, 발화하지 못하는 침묵, 남들의 시선 특히 남자들의 시선 속에서 부재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남성들은 젠더로 인해 규정지어진 이성, 언어, 존재의 속성 안에서 존재하며 반면 여성은 백인들의 규범, 남성들의 규범 안에서 부재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denial)의 분열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남성의 이성, 발화, 존재 그리고 여성의 광기, 침묵, 부재 사이에 종종 감춰진 연결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어린 흑인 여성으로서 피콜라는 점점 커지는 신화적 재현의 콤플렉스에서 신랄한 입장을 취한다. 그녀(피콜라)는 남성 문화와 백인 문화의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화 되었다).

It tells of denial disintegration, which unveils the oft-concealed connections between male reason, speech, presence and female madness, silence, absence. As a young black woman, Pecola assumes an especially poignant position in this growing complex of mythic representation; she is absent (and absented) in relation to the norms of male culture and in relation to the norms of white culture. (Miner 98)

그러나 필자는 본고에서 마이너와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한계와 일방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한 어린 흑인소녀가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기도 전에 분열되는 과정을 백인남성들의 규범에서 찾는 것이 아닌 오히려 피콜라가 속해 있는 백인의 규범을 내면화한 주변 흑인사회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피콜라와 매일 상호작용을 가졌던 흑인사회, 그 안에 살고 있는 흑인 여성들과 그리고 그녀의 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두려는 것이다. 즉, 필자는 백인 남성문화의 가치기준이나 차별적인 사고는 흑인공동체라는 매개체로 피콜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흑인 공동체는 다른 어떤 백인들 보다 더욱 강력하고 파괴적으로 피콜라를 파멸시켜가는 부분을 살펴보려 한다.

『가장 푸른 눈』 속에서 주인공 피콜라가 만나게 되는 백인 남성은 동네 가게 주인인 야코바우스키(Yacobowski)¹²⁾뿐이다. 그것도 사탕을 사러간 단 한 번의 만남이며 이 밖의 백인남성과의 만남은 『가장 푸른 눈』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피콜라가 만나는 유일한 백인이고 짧은 시간동안의 만남이었지만 피콜라는 백인 남성인 야코바우스키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흑인으로서의 실체와 그녀는 백인 소녀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얻게 되는 기회를 가진다.

백인 야코바우스키가 보여준 열사와 혐오감은 피콜라가 자신의 검음과 추함에 대한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첫 경험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자아 인식을 통하여 그녀는 자아에 대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가지는 동시에, 그녀의 주변에 의하여 내재화된 이상적 자아에 대한 동경심을 더욱 키워간다. (이수현 200)¹³⁾

피콜라는 푸른 눈의 금발을 한 여자아이의 그림이 있는 메리 제인(Mary Jane)사탕을 사기 위해서 백인 남성인 야코바우스키의 가게에 간다. 그러나 그는 피콜라를 한명의 인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텅 빈 공간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처럼 피콜라는 백인남성의 시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전락된다. 백인 남성인 야코바우스키는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는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는 ‘시선’의 주체자이며 그러한

12) 백인 남성으로서의 Pecola에 대한 시선(gaze)은 Williams, Lisa. *The Artist as Outsider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and Virginia Woolf* London: Greenwood Press, 2000.

13) 이수현. 「『가장 푸른 눈』: 흑인 자아의식의 비극적 양상」, 『한국현대 영미소설학회』, 제 9권 1호(2002):195-218.

시선 속에서 피콜라는 자신은 금발의 메리제인이 될 수 없다는 열등한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피콜라)는 그의 안중에도 없다.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입안에 남아있는 감자와 맥주 맛, 암사슴의 눈을 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동경,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 무디어진 감수성, 그런 것들을 간직한 선두 살의 백인 이민자가, 어떻게 어린 소녀에게 눈길을 주겠는가? 그의 삶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He does not see her, because for him there is nothing to see. How can a fifty-two-year-old white immigrant store-keeper with the taste of potatoes and beer in his mouth, his mind honed on the doe-eyed Virgin Mary, his sensibilities blunted by a permanent awareness of loss, see a little black girl? Nothing in his life even suggested that the feat was possible, not to say desirable or necessary. (48)

피콜라는 백인남성의 시선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비가시적인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당한다. 백인이민자인 야코바우스키는 미국 내에 뿌리내리고 있는 인종차별을 내면화하고 있고 백인 남성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피콜라를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려는 생각에서 사탕을 사러온 그녀를 쳐다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인종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

던 백인 남성으로 그는 가게에 들어온 못생기고 지저분한 흑인소녀와의 접촉 및 상호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피콜라는 단지 사탕을 사러 간 가게에서 백인 남자의 시선 속에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심리적인 상처를 입는다. 여기에 나타나는 백인의 무시와 경멸이 바로 백인 남성의 규범에 의한 것이며 흑인에 대한 차별과 폄하가 담겨있다. 백인 남성에 의해 지저분하고 못생긴 흑인 소녀로 취급당한 피콜라는 가게에 가는 도중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며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이 그 가게를 나올 때는 민들레는 역시 추한 잡초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것이다. 피콜라는 자신과 민들레를 동일시시키며 민들레와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 추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

민들레들, 갑작스럽게 분출된 애정이 민들레로 향했다. 하지만 민들레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생각한다. “저건 추해. 잡초일 뿐이야.”

Dandelion. A dart of affection leaps out from her to them. But they do not look at her and do not send love back. She thinks “They are ugly. They are weeds.” (50)

가게의 주인인 그는 피콜라에게 사탕을 건네준 후 동전을 손으로 잡을 때에도 손이 피콜라의 손바닥에 닿는 것이 싫어서 손톱으로 그녀의 축축한 손바닥을 훑을 정도로 그녀와의 접촉을 기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피콜

라는 소비의 주체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위축되고 만다. 피콜라 역시 야코바우스키가 자신을 기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검은 피부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녀는 야코바우스키뿐만 아닌 다른 백인들도 그녀를 볼 때 그들의 눈에 비가시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그런 혐오가 모든 백인의 눈에 도사린 것을 보아왔다. 그렇다. 그 혐오감은 그녀와 그녀의 검은 피부를 향한 것이 틀림없다.

She(Pecola) has seen it lurking in the eyes of all white people.
So. The distaste must be for her, her blackness. (49)

야코바우스키의 시선의 폭력에 대해 사탕을 사가지고 나오며 “피콜라는 수치심에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메리 제인사탕을 먹는다. 어쨌든 사탕을 먹는 그 순간은 메리 제인을 사랑하고 메리 제인이 되는 순간인 것이다”(50). 피콜라는 백인의 시선 속에서 무관심과 수치심을 느끼지만 메리 제인을 먹으면서 그녀는 이러한 감정들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비록 야코바우스키의 시선아래에서 메리제인이 될 수 없지만 사탕을 먹으며 메리제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피콜라는 야코바우스키와의 상호관계에서 상대방과 자신에게 화가 끓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여기서 분노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분노 속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대한 항의가 있으며 의지의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푸른 눈』을 통하여

피콜라가 백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실재를 깨닫고 분노를 느끼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분노는 오히려 나왔다. 분노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실체요, 실재이다. 가치의 깨달음인 것이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소용돌이이다.

Anger is better. There is a sense of being in anger. A reality and presence. An awareness of worth. It is a lovely surging.
(50)

이러한 인종 차별적인 시선은 어린 소녀의 가슴속에 자기 부정이라는 상흔을 남긴다. 안타까운 사실은 백인 남성의 인종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피콜라의 대항이 일시적인 분노에 그치고 지속적인 분노와 더 큰 분노로 발전되지 못하는 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아직 피콜라는 백인 남성 문화·시선에 의해 붕괴되지 않으며 소설에서 보기 드물게 주체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며 저항·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다. 피콜라는 백인 남성에 의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지만 이러한 야코바우스키의 부당한 대우에 정신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강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피콜라는 같은 여성인 친구의 어머니인 제럴다인¹⁴⁾의 폭력에 더욱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14) Geraldine의 백인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백인의 가치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흑인성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려면 Peach, Linden. "The Bluest Eye."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제럴다인은 흑인중상층이자 피부색이 갈색인 자신의 흑인성을 거부하며 『가장 푸른 눈』의 서문의 「딕과 제인 이야기」에 나오는 이상적인 백인의 집안의 모습에 충실하게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경제력과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흑인 공동체를 위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피콜라와 같은 흑인여성과는 차별화하며 피콜라의 분열에 동조하는 또 다른 한명의 파괴적인 가해자가 된다. 이러한 폭력의 예를 모리슨은 흑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미국사회의 흑인에 대한 차별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흑인 서로간의 차별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럴다인이 받은 교육을 통하여 잘 형상화되어 있다.

제럴다인은 흑인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다. 그녀가 백인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백인 사회의 가치관을 교육받았고 백인의 규범은 내재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백인사회가 정의한 검소, 인내, 도덕, 좋은 매너가 몸에 배인 여성이다. 그녀는 다른 흑인 동족과는 달리 경제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돈을 이용하여 백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여인이다. 제럴다인은 자신을 다른 흑인들과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며 흑인(Black)과 유색인종(Colored People)을 구별한다. 그녀가 대학에서 받은 교육은 백인의 이상적인 하인의 모습이다. 주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의 가게를 꾸려 나가고 복종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즉, 백인여성들의 미덕으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Geraldine이 자신의 흑인성을 피콜라를 희생양으로 삼아 피콜라에게 투사하는 과정을 보려면 Vickroy, Laurie. "The Politics of Abuse: The Traumatized Child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and *Marguerite Duras*."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로 간주되어온 “검소, 인내, 고결한 도덕관, 예절”과 “백인남성을 위해 일하는 법” (83)을 배울 뿐이다. 그리고 그녀들이 흑인의 감정의 특성이라고 여기는 ‘펑키니스’ (funkiness)¹⁵⁾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펑키니스’는 흑인 사회를 규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규 학교에 가서 백인 남성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운다. 백인 남성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정 경제학을 배우고, 흑인 어린이에게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학을 배우며 주인의 무료함을 달래고 그의 무던 영혼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음악을 배운다. 그네와 금낭화 화분이 있는, 엄격하지 않은 집에서 시작된 학습이 학교에서 완성된다. 그들은 처신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검소와 인내, 고결한 도덕관 그리고 예절을 배워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펑키니스를 없애는 것이다. 열정이라는 무서운 펑키니스, 본성이라는 무서운 펑키니스, 감정이라는 펑키니스를.

They go to land-grant colleges¹⁶⁾, normal schools, and learn how to do the white man's work with refinement : home economics to prepare his food; teacher education to instruct

15) 펑키니스(funkiness)는 우리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원래 펑크(Funk)라는 말은 흑인의 집단 거주지에서 쓰던 은어이다. 이 말은 입으로 내뿜기 곤란한 지상의 풍경, 소리, 냄새, 특히 성적 흥분이나 성교 시 발생하는 몸 냄새를 가리킨다. (태혜숙 354) 보통 펑키라고 말할 때는 비습관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함을 언급할 때 사용하며 모리슨은 이 말을 대개 흑인 문학 특유의 감성과 열정,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다.

16) 이 학교는 주로 전형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농업, 군사전략, 기계수리 기술 등을 가르치던 학교이다. 이는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교양과 실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상은 흑인들을 위한 직업교육에 한 일종일 뿐이다.

black children in obedience; music to soothe the weary master and entertain his blunted soul. Here they learn the rest of the lesson begun in those soft houses with porch swings and pots of bleeding heart: how to behave. The careful development of thrift, patience, high morals, and good manners. In short, how to get rid of the funkiness. The dreadful funkiness of passion, the funkiness of nature, the funkiness of the wide range of human emotion. (83)

김애주¹⁷⁾는 ‘펑키니스’의 특징을 “중중 흑인의 삶의 방식에 나타나는 무질서와 불결함은 생명력의 자연스러운 분출이자 억압되지 않는 개인성의 표현이다” (김애주 118)라고 정의한다. 모리슨은 『가장 푸른 눈』에서 부르주아 사회로 신분 상승한 제럴다인을 묘사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제럴다인은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자연스러운 펑키니스를 흑인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덕과 제인 이야기」에 나타난 이상적인 백인의 삶에 진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펑키니스를 철저히 억압한다.

제럴다인은 혼돈성의 완벽한 제거야말로 부르주아 계급으로서의 신분 상승, 다른 말로 한다면 문명화의 제일 조건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인간적인 감성의 교류나 자연스런 감정의 표현 등을 철저히 억압하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역겨운 혼돈성”의 억압은 문명화의 과정인 동시에 총체적인 인간성의 왜

17) 김애주. 「토니 모리슨의 『푸르디푸른 눈(The Bluest Eye』: 흑인 서술의 미학의 한 보기」. *Dongguk Review*, No.24-25, (1996): 109-128.

곡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것은 흑인성을 뿌리째 뽑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애주 120)

이렇듯 제럴다인의 흑인성을 배제하려는 노력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에게도 강요된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뛰어 노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흑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래서 그는 늘 친구가 없다. “엄마는 그가 흑인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유색인종과 흑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유색인종은 깔끔하고 조용했으나 흑인은 더럽고 시끄러웠다”(87). 하지만 제럴다인이 느끼기에 더럽고 시끄러운 흑인과 단정하고 조용한 유색인간의 차이는 거의 없고 사실상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조금만 게을리 하면 흑인의 특징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흑인의 특징인 곱슬머리는 짧게 자르고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힌다. 제럴다인은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한 흑인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언제나 긴장감에서 생활한다.

또한 제럴다인은 성적으로 방탕한 것으로 투사되는 흑인여성의 이미지를 벗어나려 하는 노력의 결과 오히려 성에 대한 혐오와 청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된다. 그녀의 청결에 대한 왜곡된 의식은 남편과의 성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제럴다인은 그녀의 부부관계에서 보듯이 성을 ‘더러운’ 것으로 그리고 남편을 ‘침입자’로 본다. 자신의 머리가 망가지는 것과 그녀의 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걱정하며 형식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

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욕망에는 전혀 거부하지 않고 쾌감을 가장하는 성에 대한 이중적인 의식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정신적, 육체적 교감이 아닌 생식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아무런 기쁨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결하고 깨끗한 고양이와의 접촉을 통해서 성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간혹 그녀는 다른 생명체에 애정을 쏟을 것이다. 아마도 그 생명체는, 그녀의 질서정연함, 정확성, 불변성을 사랑하고 그녀처럼 깨끗하고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고양이가 될 것이다.

Occasionally some living thing will engage her affections. A cat, perhaps, who will love her order, precision, and constancy; who will be as clean and quiet as she is. (85)

이러한 육체에 대한 혐오는 그녀의 아들 주니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주니어를 가부장의 상속자로 물리적인 욕구를 충실하게 충족시켜 주지만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모성은 결여되어 있다. 아들의 물리적인 요구에 따라 씻겨주고 빗질 해주고 크림도 발라주지만 아들에게 말을 걸거나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한다. 자식을 향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나 애정의 표시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듯 제럴다인은 자신의 흑인적인 요소는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주니어는 상대적으로 자신 보다 힘이 약한 동물이나 여자아이들을 괴롭히게 된다. 그는 학교에서 늘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인 피콜라에게 새끼 고양이를 보여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녀에게 고양이를 던지며 폭력을 휘두른다. 때마침 나타난 주니어의 어머니 제럴다인은 소리를 지르는 아들, 내동댕이 처진 고양이, 자신의 거실에서 있는 낫선 흑인 소녀를 발견한다. 그녀는 피콜라를 보고서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두려워하며 싸워왔던 흑인(nigger)으로서의 자아를 확인하게 된다. 제럴다인은 피콜라를 보자 자신 속에 숨어 있는 ‘흑인성’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흑인과 유색인종의 경계에서 철저히 배척하려고 했던 흑인(nigger)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는 피콜라를 쳐다보았다. 더럽고 찢어진 옷, 땅은 머리사이로 빠져나온 머리카락, 흙투성이의 싸구려 신발, 지저분한 양말이 보였다. 양말 한쪽은 신발의 뒤축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옷의 치맛단을 고정시킨 핀도 보였다.

She looked at Pecola. Saw the dirty torn dress, the plaits sticking out on her head, hair matted where the plaits had come undone, the muddy shoes with the wad of gum peeping out from between the cheap soles, the soiled socks, one of which had been walked down into the heel of the shoe. She saw the safety pin holding the hem of the dress up. (91)

제럴다인에게 피콜라는 한 어린 흑인 아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녀가 그동안 지키고 감추려고 했던 모든 추함, 흑인성, 더러움, 불명예의 상징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제럴다는 자신의 세계에 접근한 11살 소녀 피콜라를 거부하고 욕을 퍼부으며 자신의 집과 자기의 시야에서 내몰아낸다. 그녀는 자신의 흑인성이 발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에서 자신의 집에 나타난 흑인 소녀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제럴다인은 그녀와 같은 흑인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생활상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콜라를 마치 더러운 파리를 쫓아내듯이” (92)내쫓는다. 피콜라는 「덕과 제인 이야기」의 이상적인 백인의 집을 모방한 제럴다인의 집에서 추방당해서 나올 때 거리에는 삼월의 차가운 바람이 찢어진 옷사이로 스며들고 피콜라는 추위에 떨며 고개를 숙이며 “보도에 떨어져 죽어가는 눈송이들” (93)은 그녀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피콜라는 제럴다인이 억압하기 위해서 싸워온 모든 것들이다. 그녀는 제럴다인에게 “펑크”인 것이다. 흑인성의 바로 그 흑인성의 그림자인 것이다. 제럴다인이 피콜라에게 그녀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할 때 “어서 나가”,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추잡한 꼬마 계집애 같으니. 내 집에서 꺼져.” - 제럴다인 역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흑인성의 흔적, 그녀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Pecola is everything that Geraldine is fighting to suppress. She is, for Geraldine, “funk,” shadow, the blackness of blackness.

When Geraldine tells Pecola to leave her house - "Get out," she said, her voice quiet. "You nasty little black bitch. Get out of my house." - she is also, in effect, attempting to rid herself of her fears of her own evil, of her own unworthiness, of her own shadow of blackness. (Awkward 87)

제럴다인의 흑인성이 발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질서정연한 자신의 세계에 침범한 피콜라를 마치 더러운 파리인양 쓸어버리는 것이다. 비록 외부적으로 볼 때 제럴다인은 흑인 공동체의 질서에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콜라에게 끼친 정서적인 해악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야코바우스키가 피부색이나 빈부의 관계없이 모든 흑인을 인간적인 존재로 의식하지 못한 반면 제럴다인은 자신보다 검고 가난한 흑인을 자신과 같은 동족으로 의식하기를 거부하고 희생양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이처럼 피콜라가 충분히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같은 흑인여성으로부터 오히려 백인보다 더한 피부색에 의한 차별과 소외를 당하게 된다.

아름다운 집과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는 흑인 여성인 제럴다인은 피콜라에게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우상화된다. 그러나 제럴다인은 아들의 친구에게 대해주는 따뜻함이 전혀 없이 "나가 추잡한 꼬마 계집애 같으니. 내 집에서 꺼져"(92)라고 말하며 피콜라를 자신의 집에서 추방시킨다. 피콜라는 같은 반 친구 모린의 말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듯이 제럴다인의 폭력적인 말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내면화하며 3월의 추위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추잡한 꼬마 계집애'가 되어버린다. 이처럼, 백인 또는 흑

인 남성보다는 같은 흑인 여성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폭력을 당한다

3) 가정 내의 폭력성

토마스 (Leester Thomas)는 ‘가정’(hom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정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Home becomes the proverbial home, sweet home, a place that has no rival” 233).¹⁸⁾ 집안 한가운데에 석탄 난로가 있지만 온기가 전혀 없는 브리드러브 가족은 서로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 한다 집안의 가구들도 갖든 추억이 하나도 없고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추억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어머니와 피콜라의 관계에서 어머니인 폴린은 임신 중에는 뱃속의 태아와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피콜라를 아꼈지만 막상 그녀가 태어나자 그녀를 추하다고 정의 내린다. 그 후 폴린은 자신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 즉, 결혼 생활의 불만족, 가족에 대한 미움, 가난에 대한 원망을 모두 자신의 딸 피콜라에게 쏟아 붓는다 큰 아들 새미 이 후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애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교도 열심히 했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자신이 흑인이며 무능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닮은 피콜라를 낳았을 때 자신의 딸을 못생겼다고 말한다.

18) Thomas, Leester. “When Home Fails to Nurture the Self: The Tragedy of Being Homeless at Home.”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촉은하고, 눈물어린 듯한 눈에다. 강아지의 눈망울과 죽어가는 사람의 눈동자, 그 중간쯤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그 애는 못생겼어. 머리카락은 탐스러웠지만, 그래도 못생겼지.

Eyes all soft and wet. A cross between a puppy and a dying man. But I knowed she was ugly. Head full of pretty hair, but Lord she was ugly. (126)

폴린은 흑인인 자신을 백인의 미와 비교하여 열등하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폴린은 이미 백인 미의 가치를 내재화했기 때문에 백인문화의 '시선'으로 자신을 닮은 딸이 태어나자마자 못생겼다고 단정지어 버린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도 올바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다. 이처럼 폴린은 자신의 딸 피콜라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순간마다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딸이 서서히 자아가 파괴되어 나아가는 것을 묵인해버린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폭력성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며 피콜라가 태어나서부터 자아가 파멸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속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어머니인 폴린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딸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딸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이유에는 개인적인 결함보다는 폴린 자신 역시도 지배적인 백

인 사회의 시선에 대항할 저항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못한 허약한 주체이며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백인 문화에 의한 폴린의 자기 부정의 삶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딸에게 충분한 모성을 주지 못하고, 자신을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만든 백인 이데올로기의 사회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 역시 부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폴린의 자기 부정의 삶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두 살 때 녹슨 못을 밟아 그 후 다리를 약간 절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소한 신체적인 결함을 구실로 가족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나약한 인물이다.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들이 때마다 그녀는 늘 자신의 발을 탓하고 자신을 점점 소외된 상태로 만든다. 그런 그녀는 자신의 고립된 생활에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한다던가 집안일을 돌보는 일에 열중하게 되고 자신만의 소외된 세상을 만든다.

폴린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익숙했던 혼자만의 한적한 생활로부터 자신의 삶을 이끌어 줄 미지의 완전한 존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켄터키에 정착한 그녀의 가족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녀는 백인 목사의 집의 가정부로 집을 비우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맡아 하게 된다. 그녀는 집안의 물건들을 종류별로 나열하고 정리하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안정과 활력을 찾게 된다. 그러나 16살이 되고 여전히 집안일을 맡고 있는 예전의 열정은 잃어버리게 되며 자신을 이러한 일상에서 탈출 시켜 줄 남자, 사랑 그리고 육체적 접촉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미지에 존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 폴린에게 상상속의 완벽한 존재인 출리가 나타난다. 출리는 그녀가 외부와 소통할 수 없이 자신 안에 갇혀 있도록 만들었던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인 발에 입을 맞추며 다가올 상상속의 인물이 출리로 구체화 한 것이다. 그와의 만남으로 인하여 늘 짐스러웠던 그녀의 발이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지게 된다. 그를 처음 본 순간이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떠올리게 될 만큼 출리에 대한 그녀의 기대감은 너무나 크다.

처음 출리를 봤을 때의 그 느낌은 여러 색깔로 표현할 수가 있어.
. . . 그 모든 색깔이 내안에 있었어. 그냥 내 안에 들어있었지. 그래서 출리가 다가와서 내 발을 간질일 때 딸기와 레모네이드, 반딧불이의 초록색 띠가 한꺼번에 느껴졌지.

When I first seed Cholly, I want you to know it was like all the bits of color from that time down home . . . All of them colors was in me. Just sitting there. So When Cholly come up and tickled my foot, it was like them berries, that lemonade, them streaks of green the June bugs made, all come together.
(115)

그러나 결혼전의 기대와는 달리 결혼 후 점점 출리의 사랑과 관심이 멀어지자 폴린은 자신을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주변의 흑인 여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북부 흑인 여성의 외모에 비해 촌

스럽다고 느끼고 자신의 외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 백인의 미를 답습한 북부 흑인여성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곱슬거리는 머리를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부의 사투리를 고쳐보려고 하고, 그들의 기호에 맞는 화장을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오히려 더욱 웃음거리만 되고 우스꽝스러워질 뿐이다. 그녀가 이웃과의 동화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점차 남편과의 다툼은 늘어만 가고 끝내 그녀는 북부의 흑인 여성들과의 동화에도 실패하고 만다.

슬픈 사실은 폴린은 옷이나 화장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만 다른 여자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눈길을 보내주기를 원했다.

The sad thing was that Pauline did not really care for clothes and make up. She merely wanted other women to cast favorable glances her way. (118)

북부 흑인 여성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소외감과 남편으로부터의 외로움을 폴린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위로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헐리우드의 영화 속에는 백인문화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의 산업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폴린은 영화를 통해서 자신이 꿈꾸던 낭만적인 사랑과 백인 배우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자신의 미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흡수해 버린다. 그녀는 이제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영화가 만들어 내는 가상현실에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며 킁킁한 극장처럼 그녀의 정

체성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푸른 눈과 금발의 백인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진 폴린은 백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육체를 혐오하기 시작한다. 또한 영화 속에 나오는 낭만적인 사랑과 현실 속에서의 남편과의 사랑을 혼돈하기 시작하며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 현실속의 남편을 보는 것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며 현실의 생활을 부정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흑인성을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백인의 미의 기준을 자신의 미의 기준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백인문화의 ‘시선’의 평가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기의 정체성 및 가치를 전락시키고 만다.

월리스 (Susan, Willis)¹⁹⁾은 ‘소외’(alienation)를 “그녀 혹은 그의 문화적인 중심에서부터의 개인적인 분리”(“an individual’s separation from his or her cultural center” 47)라고 정의한다. 폴린은 흑인인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백인의 문화적인 가치와 백인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정신 분열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중요한 점은 그녀의 분열은 그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자신의 딸에게도 그대로 답습된다는 것이다. 월리스는 폴린의 소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부유한 호숫가의 저택의 가정부로서, 폴리는 정신적 분열상태의 삶을 살게된다. 그녀의 주변화된 삶은 헐리우드 영화의 세계, 하얀 시트, 어린 금발의 아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비교된다. 일터에서나 영화관에서, 그녀는 자신의 곱슬머리와 썩은 치아로부터 스

19) Willis, Susan. “Eruption of Funk: Historicizing Toni Morriso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스로를 분리시킨다. 이러한 소외의 비극은 엄마의 역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녀의 정서는 파괴되고, 폴린은 주인집 아이에게 애정을 쏟고 사랑을 해준다. 반면에 그녀는 자신의 친딸에게는 폭력과 경멸을 퍼붓게 되는 것이다.

As housemaid in a prosperous lakeshore home, Polly Breedlove lives a form of schizophrenia, in movies, white schizophrenia, in which her marginality is constantly confronted with a world of Hollywood movies, white sheets, and tender blond children. When at work or at the movies, she separates herself from her own kinky hair and decayed tooth. The tragedy of a woman's alienation is effect on her role as mother. Her emotions split, Polly showers tenderness and love on her employer's child and rains violence and disdain on her own. (Willis 48)

폴린은 자신의 남편 출리의 경제적인 무능함 때문에 백인가정의 가정부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점차 그녀의 가족에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기 시작한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방어기재”(defense mechanism)이기 때문이다. 남편과 자녀들이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여성이 되어버린다. “출리를 죄 많은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며 남편을 가시 면류관인 양, 아이들을

십자가인 양 생각했다” (“Cholly as a model of sin and failure, she bore him like a crown of thorns, and her children like a cross” 126-27).

폴린은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불만족한 삶과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대한 탈출구로 이상적인 백인 가정의 가정부의 역할에 충실하며 백인 주인에게 가정부로서 인정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백인 주인이 지어준 ‘폴리’(Polly)라는 애칭에 기뻐하는 ‘이상적인 가정부’ (the ideal servant)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이제 폴린은 자신이 일하는 백인의 집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자져보지 못했던 ‘권력’, ‘칭찬’, ‘사치’를 누리게 되고 자신의 집이 아닌 백인의 집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이러한 가치는 오로지 혼자서만 즐기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삶에 대한 온갖 두려움을 심어준다.

아들에게는 도망치고 싶다는 욕구를 불어넣었고, 딸에게는 성장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Into her son she beat a loud desire to run away, and into her daughter she beat a fear of growing up, fear of other people, fear of life. (128)

피콜라와 폴린의 모녀관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피콜라는 언제나 자신의 어머니를 브리드러브 부인(“Mrs. Breedlove”)라고 부르는데 집주인의 딸은 폴리(“Polly”)라고 부르는 모습이다. 피콜라가 백인

피셔씨(Fisher)의 부엌에서 실수로 잣 구운 블루베리파이가 든 뜨거운 팬을 떨어트려 마룻바닥에 까만 블루베리 즙이 사방에 튀고 피콜라의 다리에 뜨거운 블루베리즙이 튀어 아파하지만 폴린의 관심은 뜨거운 파이를 뒤집어쓴 딸도 아니고 망친 음식도 아니며 오직 “내 마룻바닥”인 것이다. 딸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이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백인 주인집의 부엌이 어지럽혀지는 것이다.

“미친 바보 . . . 내 마룻바닥, 엉망이야 . . . 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봐 . . .일을 . . . 겨우 끝냈는데 . . . 이제 와서 . . . 미친 . . . 내 마룻바닥 . . . 내 마룻바닥.” 그녀의 말은 김이 나는 블루베리보다 더 뜨거웠고 더 짙은 색이었다. 우리(클라우디아와 프리다)는 무서워 뒷걸음질쳤다. 분홍색 옷을 입은 꼬맹이가 울기 시작했다. 브리드러브 부인이 그 아이를 향해 돌아섰다. “셋, 우리 아기, 셋, 이리오렴. 오 저런. 옷 좀 봐. 그만 울어. 폴리가 새 옷을 입혀줄게.”

“Crazy fool . . . my floor, mess . . . look what you . . . work . . . get on out . . . now that . . . crazy . . . my floor, my floor . . . my floor.” Her words were hotter and darker than the smoking berries, and we(Claudia and Frieda) backed away in dread. The little girl in pink started to cry. Mrs. Breedlove turned to her . “Hush, baby, hush. come here. Oh, Lord, look at your dress. Don’t cry no more. Polly will

change it.” (109)

폴린이 자신의 딸 피콜라에게 주는 폭력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백인 주인집 딸이 울음을 터트리자 그녀는 자신의 딸 피콜라는 때리며 마루로 밀쳐내고 주인집 딸은 달래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와 같이 폴린은 분명히 모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폴린의 모성은 흑인이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딸을 향하는 것이 아닌 백인 주인의 딸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인주인집 딸에게는 ‘달콤’ (‘the honey in her word’)한 목소리로 말하는 그녀가 자신의 딸에게는 ‘타버린 블루베리보다 뜨겁고 짙은’ (‘her words were hotter and darker than the smoking berries’)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것이다.

이처럼 백인의 가치관과 지배적인 시선을 내면화란한 “폴린은 자신의 딸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집 딸의 입장에서 서서 더럽고, 불쌍한 피콜라와 자신이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딸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백인 가정의 질서와 안락함 속에서 배척하고 분리시키는 행동을 한다.” (Awkward 86)

폴린의 행동은 제럴다인의 행동과 전혀 다르지 않게 반복되어 나타난다. 마치 제럴다인이 피콜라를 더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정결한 집에서 마치 파리를 쫓아내듯이 그녀를 쫓아냈다면 폴린 역시 블루베리로 망쳐진 마루를 닦는다며 자신의 딸을 더러운 세탁물과 함께 나가라며 쓸어 내버리는 것이다. 피콜라의 자아붕괴는 친구들과 제럴다인에 의해서 증폭되는 면도 있지만 그녀를 최종적으로 가장 잔인하게 파괴시키고 있는 사람은 가장 그녀를 사랑해야 할 엄마라는 점에서 폴린의 책임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폴린과의 상호 관계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폭력의 주체가 엄마라는 사실은 피콜라에게 더욱 치명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후기에서 모리슨의 주장처럼 “피콜라의 분열에 참여하고 비극적으로 몰아간 등장인물들을 비인간화하고 싶지는 않았다” (“I did not want to dehumanize the characters who trashed Pecola and contributed to her collapse” 211)라고 밝히고 있다. 모리슨은 독자로 하여금 피콜라를 파멸시키는 데 일조한 모든 인물들에게도 동정적인 이해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콜라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이지만 그들 역시 백인 규범 속에서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모리슨은 역시 출리의 강간의 행위에 동정적인 이해 및 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모리슨의 동정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폭력의 파괴성과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가장 푸른 눈』 속에서의 폭력의 형태는 크게 육체적인 강간과 정신적인 강간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 각각의 폭력성은 피콜라를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필자는 아버지인 출리에 의한 육체적인 폭력과 소프헤드의 정신적 강간을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마이너는 출리가 딸 피콜라를 강간한 결과는 피콜라의 정체성을 분열시키는데 가장 파괴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마이너에 따르면 남성은 언제나 잠재적인 강간범이고 늘 여성을 희생자로 만든다고 한다. 그녀가 말하는 남성의 폭력은 주로 육체적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강간의 결과 마치 “바람이 빠진 써커스의 풍선”처럼, 피콜라는 삶에 주는 산소의 혜택을 잃은 것처럼

그녀의 삶의 길 역시도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한 명의 어린 여성에 대해 강간의 결과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모리슨은 젠더로부터 일련의 연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남성들은 잠재적인 강간범들로서 그들의 특수한 영역으로서 존재, 언어, 이성을 확고하게 해나간다. 반면 여성들은 잠재적인 희생자이며 부재, 침묵, 광기의 희생자로 전락 한다.

Morrison sets into motion a series of associations that take their cue from gender. Men, potential rapists, assume presence, language, and reason as their particular province. Women, potential victims, fall prey to absence, and madness. (Miner 90)

그러나 모리슨은 출리의 강간장면을 다루는데 있어 과거 회상에 들어가 독자에게 그의 행동의 동기여부를 설명한다. 모리슨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출리의 어릴 적 정체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리슨은 출리의 정체성을 보여줌으로서 그 역시도 백인의 폭력에 희생당한 한명이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출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을 한 그의 어머니를 두고 달아났으며, 어머니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 더미에 버리며 그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지미(Jimmy)라는 이모할머니의 손에서 자란다. 지미할머니마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되자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근

원을 찾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 나서지만 메이콘에서 만난 출리의 아버지는 자신을 찾아온 아들에게 증오심만을 표시할 뿐 그에게 어떠한 반가움도 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욕설을 하며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준다. 결국 출생을 하기도 전에 버림을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또 다시 거절당하고 만 것이다.

또한 출리는 유년시절에 백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겪는다. 그는 이모할머니의 장례식 날 이웃 흑인소녀 달린(Darlene)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게 된다. 그는 달린과의 관계에서 남성으로서 주체가 되어 성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총을 가진 백인 사냥꾼들에게 모욕과 협박을 받고 백인남성이 보는 앞에서 그 행위를 계속할 것을 명령받는다. 여기서 출리는 수치심과 증오심을 느끼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그의 수치심이 자신을 총으로 위협하는 백인 때문이기 보다 달린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무력함 때문이다. 이런 무력함 때문에 발생한 수치심은 오히려 달린에 대한 증오심으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그는 그녀에게 증오감을 느꼈다. 그는 강하고, 길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랄 뻔했다. 그만큼 그녀에게 증오감을 느꼈다. 플래쉬 빛이 그의 내장 속으로 들어와 그 포도의 달콤한 맛을 썩고 악취 나는 담즙으로 바꿔놓았다.

He hated her. He almost wished he could do it-hard, long, and painfully, he hated her so much. The flashlight wormed its way

into his guts and turned the sweet taste of muscadine into rotten fetid bile.(148)

첫 경험의 상처로 인해 그는 ‘남성다움’이라는 그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입는다. 그 결과 출리의 의식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버린다. 이렇게 플래쉬로 상징된 남성의 성기와 빛으로 대표되는 백인성에 의해 출리는 처참하게 짓밟힌다. 그럼으로 희생자 출리는 이제 가족을 희생시키는 폭력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출리는 극히 ‘자유로운 사람’ (free man) (206), ‘위험스러운 자유인’(dangerously free)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곧 무책임을 표현하는 단어에 불가하다. 남편으로써, 아버지로서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부도덕한 자유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욕망과 흥미에 따라 움직이며 삶을 사는 위험한 존재로 전락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 온 그는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과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무지할 뿐이다. 술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 가족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지식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전혀 모르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떤 것

인지 알 수 없었다.

Having no idea of how to raise children, and having never watched any parent raise himself, he could not ever comprehend what such a relationship should be.(160)

출리의 피콜라 강간 사건을 비크로이(Laurie Vickroy)는 출리의 의식을 투사하는 행동으로 설명한다. 피콜라의 몸짓은 출리가 한때 가졌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오르게 했고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는 그의 무력함과 백인 남성들에게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도와주지 못했던 그의 무기력은 폭력적인 형태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백인사냥꾼들이 달린과 행복한 한 때를 보내는 출리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정신적인 상흔을 입힌 것처럼 출리 자신도 백인처럼 딸인 피콜라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흔을 입히게 된다.

피콜라는 한 때 출리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고 무기력하였다. 삶에 대한 그의 비관적인 태도와 사랑에 대한 그의 포용력은 외상성의 정황으로 되돌려놓는다. 그리고 그는 긍정적으로 삶과 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그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은 피콜라에게 모든 것을 투사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그는 그녀를 강간함으로써 이러한 두려움을 파괴하도록 노력한다.

Pecola is like Cholly once was, small and impotent. His

pessimistic attitudes toward life, himself and his capacity to love return to this traumatic context, and he loses the ability to approach life or his daughter positively. One way for him to rid himself of his fears is to project them onto Pecola, and in part he tries to destroy those fears by raping her. (Vickroy 207)

어느 날 출리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피콜라가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한 발로 종아리를 문지르며 설거지를 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옛날 처녀적의 행동을 떠올린다. 어리고 무기력해 보이는 딸의 굽은 등을 보면서 측은함과 동시에 그런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신과도 같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자신의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혐오를 느낀다. 하지만 곧 외부로부터 자신의 딸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 연민, 사랑을 느낀다. 출리는 자신의 죄의식과 무능함에 괴로워하며 도대체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생각했으며 그의 대답은 바로 피콜라를 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작고 단순한 몸짓이었지만 그 동작은 그를 놀라운 부드러움으로 채웠다. 그것은 다리를 벌리려는 일상적인 욕정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다. 그는 그녀를 강간하고 싶었다.
- 부드럽게.

It was such a small and simple gesture, but it filled him then with a wondering softness. Not the usual lust to part tight legs with his own, but a tenderness, a protectiveness. He wanted to fuck her- tenderly. (161-62)

출리는 자신의 성적인 희열을 위해서 피콜라를 강간하는 것이 아니다. 출리의 의식은 강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행복의 전부인 성적 희열을 자신의 딸에게 주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적인 “사랑”의 결과로 피콜라는 회복되지 못하는 육체적인 파괴의 과정을 밟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해 주위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저주와 외면을 당하고 만다. 이처럼 피콜라의 육체를 파괴하는 사람은 그녀의 아빠, 출리인 것이다. 명백한 육체적인 폭력이며 그의 사랑은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것이었다. 다만 출리는 외부로부터 자신의 딸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 연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의 사랑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란 출리가 딸에게 해줄 수 있었던 왜곡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하여 최소한 출리는 딸 피콜라를 사랑했다고 클라우디어는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출리도 그녀를 사랑했다. 나는 확신한다. 어쨌든 그는 아이를 만지고, 감싸주고, 자신의 일부를 줄 만큼 그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치명적인 것이었고, 고뇌로 시달린 그 아이의 자궁에 죽음을 채워줄 뿐이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다. 사악한 사람들은 사악하게 사랑을 하고, 난폭한 사람들은 난폭하게 사랑을 한다. 약한 사람들은 약하게 사랑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사랑한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의 사랑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랑 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아를 망각하고, 얼어붙는다.

Cholly loved her (Pecola). I am sure he did. He, at any rate, was the one who loved her enough to touch her, envelop her, give something of himself to her. But his touch was fatal, and the something he gave her filled the matrix of her agony with death. *Love is never any better than the lover. Wicked people love wickedly, violent people love violently, weak people love weakly, stupid people love stupidly, but the love of a free man is never safe. there is no gift for the beloved. the lover alone possesses his gift of love. The loved one is shorn, neutralized, frozen in the glare of the lover's inward eye.* (206)

출리는 동전을 집을 때의 피콜라와의 접촉이 싫어 돈을 훔고 있던 백인 남성 야코바우스키, 정돈된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며 마치 더러운 파리때처럼 내몰아버리는 제럴다인, 마루를 닦아야 한다며 백인의 집에서 지저분한 빨래와 함께 나가라며 소리지르는 폴린과 다르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접촉하기 싫어했던 피콜라를 만지고 감싸주려고 했으며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주려고 한 인물인 것이다. 다만 사랑의 행위는 사랑하는 사람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기에 ‘자유로운 사람’인 출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 없고 오히려 사랑 받는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필자는 오히려 육체적인 강간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정신적, 심리적인 강간이며 이는 피콜라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피콜라는 마을에서 ‘꿈을 읽어주고 충고해 주며 해석해주는 사람’ (165)으로 인식받고 있는 혼혈인 소프헤드 처치(Soaphead Church)²⁰를 찾아가 정신적 폭력의 과정을 겪는다. 피콜라는 그를 찾아가 자신의 눈을 푸르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한다.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피콜라에게는 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자신이 엄마로부터 받을 사랑을 빼앗아간 백인 주인 집 피셔가의 딸의 눈이며 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셜리 템플(Shirley Temple)의 눈인 것이다. 피콜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검은 눈이 푸른 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소프헤드는 ‘푸른 눈’을 원하는 피콜라의 소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늙고, 무력한 주인집 개를 독살하는데 그녀를 이용한다. 피콜라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면서 그가 평소에 죽이고 싶었던 하숙집의 늙은 개를 죽이고 만다. 소프헤드는 자신이 푸른 눈을 가졌다면 분열해가는 피콜라를 보면서 신을 비웃으며 신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콜라에게 푸른 눈을 가지게 해 주겠다고 그녀의 정신세계를 분열시키는 정신적인 폭력자일 뿐이다.

20) Soaphead의 혼혈인으로서의 정체성은 Duvall, John N.의 "Naming the Invisible Authority: Toni Morrison's covert Letter to Ralph Ellison." *Studies in American Fiction* 25, no. 2(Autumn 1997): 239-249.

그는 어린아이의 고통과 소외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고등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불안정한 우주를 만들어낸 신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킨다. 아버지의 강간 이후에 육체적인 상실에 괴로워하는 피콜라에게 신을 대신해서 푸른 눈을 만들어 주었다고 여기며 피콜라의 정체성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고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피콜라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파괴시키는 소프헤드에게서 마지막 도피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소프헤드의 신통력도 거짓이며, 피콜라에게 푸른 눈을 주었다는 그의 말도 거짓이다. 그는 단지 피콜라가 푸른 눈에 대한 집념과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서 현실적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정신이상 상태의 비현실적인 환상 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었다.” (이수현 203)

푸른 눈을 가졌다고 믿는 피콜라는 이제 자신만의 환상 속으로 도피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환상 속에서 자신의 거울 이미지(mirror image)인 친구를 창조해 대화를 나누고 드디어 모두가 찬미하고 부러워하는 ‘푸른 눈’을 가지게 됐다는 환상 속에 들어가게 된다. 피콜라의 자아분열은 그녀가 상상의 친구와 나누는 마지막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자신의 흑인성을 사랑하며 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는 클라우디아와는 달리 피콜라는 오직 광기라는 비현실적인 세계에서만 대화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

뭐? 뭐에 대해 이야기할까?

있잖아. 네 눈.

아, 맞아. 내 눈이 있었지. 내 푸른 눈이. 다시 한 번 봐야겠어.

그 눈이 얼마나 예쁜지 봐.

예뻐. 볼 때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아.

네 눈은 내가 지금까지 본 눈 가운데 가장 예뻐.

정말?

응.

하늘보다 더 예뻐?

그렇고 말고 하늘보다 훨씬 더 예뻐.

엘리스와 제리의 이야기책에 나오는 눈보다 더 예뻐?

물론이지. 엘리스와 제리의 이야기책에 나오는 눈보다 훨씬 더 예뻐.

What? What will we talk about?

Why, your eyes.

Oh, yes. My eyes. My blue eyes. Let me look again.

See how pretty they are.

Yes. They get prettier each time I look at them.

They are the pretties I've ever seen.

Really?

Oh, yes.

Prettier than the sky?

Oh, yes. Much prettier than the sky.

Prettier than Alice-and-Jerry Storybook eyes?

Oh, yes. much prettier than Alice-and-jerry Storybook eyes.

(201)

소프헤드에 의해 정신적인 상흔을 입은 피콜라의 정신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인물은 그녀의 엄마인 폴린이다. 그녀의 딸에 대한 폭력성은 그녀의 아버지 출리가 피콜라를 강간 한 후 근친상간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콜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 상상속의 자아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 피콜라가 정신 이상이 되고 난 후에도 어머니의 폭력은 피콜라가 상상속의 친구와 나누는 대사에서도 나타난다. 폴린은 피콜라의 아픔을 외면하고 도움을 원하는 그녀에게 해악만을 끼칠 뿐이다. 다음은 상상속의 친구와 나누는 피콜라의 대화이다.

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학교도 안 다녀. 그리고 아무도

너에게 말을 걸지 않잖아.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

말하지 않을 거야 네가 집안에 있을 때, 브리드러브 부인은 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때때로 나는 그녀가 너를 보고나 있는지 궁금해.

You don't talk to anybody. You don't go to school. And nobody talks to you.

*How do you know nobody talks to me?
They don't. When you're in the house with me, even Mrs.
Breedlove doesn't say anything to you. Ever. Sometimes I
wonder if she even sees you. (198)*

이처럼 폴린은 자신의 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함으로서 피콜라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한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내면화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더 이상 강간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며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피콜라가 출리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녀는 폴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폴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상처를 받은 자신의 딸을 보호해 주려는 노력보다는 상처를 입은 딸을 심하게 구타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간을 당했을 때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피콜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또한 말을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또한 백인 지배사회로부터 흑인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폴린은 남편의 폭력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백인의 이상적인 가정부로서의 임무에만 충실한 채 결국 딸을 정신분열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넌 왜 브리드러브 부인에게 말하지 않았어?

난 그녀에게 말했어!

. . .

내가 그녀에게 말을 해도 그녀는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

왔어.

그래서 두 번째로 벌어진 일을 이야기 하지 않은 거야?
말했더라도 역시 믿지 않았을 거야.

Then why didn't you tell Mrs. Breedlove?

I did tell her!

She (Pauline) didn't even believe me when I told her.

So that's why you didn't tell her about the second time?

She wouldn't have believed me then either (200)

모리슨은 피콜라의 강간의 장면에서 어머니인 폴린의 폭력성을 교묘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폴린은 피콜라에게 고통을 준 출리만큼이나 비난받을 만하다. 출리의 사랑은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것이었지만 폴린은 애정이 없는 것이다.” (Furman 189). 묵인된 강간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피콜라는 현실 세계에서 침묵하게 되고 완전히 분열되고 만다. 이처럼 어머니인 폴린은 육체적으로 그녀를 강간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피콜라의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며 폴린은 자아가 분열된 자신의 딸에게 해준 일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사와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는 일뿐이다.

출리는 피콜라를 강간하였지만 브리드러브부인은 서서히 피콜라의 영혼을 파괴시켰다.

While Mrs.Breedlove slowly destroyed Pecola's spirit,
Cholly reined her. (Thomas 234)

백인의 가치를 내면화한 어머니인 폴린은 자신의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자신의 딸에 대한 미움과 사랑의 결여는 피콜라가 흑인 공동체에서,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는커녕 각각의 집단에 배척당하고 ‘추방자’(outdoors)의 처지가 되어 파멸되는 과정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가장 푸른 눈』의 주인공인 흑인 소녀 피콜라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되지도 못하고 파멸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정체성 상실의 원인은 어느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가장 가까운 흑인 공동체의 구성원에서부터 피콜라와 실질적인 상호관계는 없었지만 백인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인물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피콜라가 흑인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의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마침내 피콜라는 긍정적인 자아를 확립하기도 전에 흑인 친구들,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차별과 ‘희생양’의 대상이 되고 점점 파멸되어간다. 더욱이 피콜라는 아버지로부터 근친강간을 당하고 육체적인 붕괴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 그녀의 파멸은 혼혈 남성인 소프헤드와 어머니 폴린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더욱 심화되어 마침내 그녀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광기로 정의되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돌과구를 만들고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모리슨이 『가장 푸른 눈』을 통하여 피콜라의 파멸만을 보

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오히려 피콜라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주변의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긍정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모리슨의 의도라고 생각된다. 우선 흑인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최하 계층의 흑인 공동체인 3명의 창녀 집단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맥티어 가족을 통해서 브리드러브 가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가족간의 사랑과 보호본능으로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르치는 가정의 힘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피콜라와 비슷한 나이의 흑인소녀를 통하여 앞으로의 흑인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흑인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모색해 보려한다.

Ⅲ. 결론

1. 흑인사회의 정체성 회복

모리슨은 피콜라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흑인사회의 패배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필자는 피콜라의 분열의 과정을 보여주는 모리슨의 의도는 피콜라의 비극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푸른 눈』은 흑인 소녀의 분열의 과정을 통하여 흑인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스스로가 각성하게 만든다. 소설속의 피콜라의 분열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나레이터인 클라우디어 역시 피콜라와 비슷한 환경의 흑인 소녀이다. 어른이 된 그녀는 과거에 피콜라의 아픔에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한 사실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 소녀가 성장했을 때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또한 모리슨이 흑인 공동체의 책임의식과 그들의 주체적이며 긍정적인 변화까지도 텍스트 안에서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모리슨은 분명 소설 내에서 자구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흑인공동체에서 가장 주변화 된 계층인 창녀들이 주체적이며 보호본능적인 손길로 피콜라를 감싸주는 장면이 암시적이다. 이 장면은 피콜라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사랑의 따뜻하고 낭만적인 일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피콜라를 귀여운 어린소녀로 대해주는 점이 미래지향적이다. 이처럼 모리슨은 폭력적이고 배타적이었던 흑인 공동체의 대안을 창녀들의 삶에서 찾는다. 브리드러브 가족이 사는 집 위층에는 살고 있는 세 명의 창녀 차이나(China), 마리

(Marie) 그리고 폴란드(Poland)이다. 그들은 내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 여성들로서 남자를 경멸하지만 그 경멸하는 남성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창녀들이다. 이 세 명의 창녀들은 남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회적 부정적인 평가에도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흑인 공동체 여성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스스로의 잣대로 자신의 직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창녀집단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남성에게 의한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체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최하 계층에게서 자매애를 확인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길런(Jennifer Gillan)²¹⁾ 세 명의 창녀의 이름은 각각 차이나는 아시아를 폴란드는 유럽을 상징한다고 한다. “차이나와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에 맞서는 중국인과 유럽인을 상징한다” (“The names China and Poland signify the European and Asian front of World War II” 10). 필자는 각각의 창녀인 폴란드는 유럽을 마찬가지로 마리는 프랑스로서의 이름으로써 유럽을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차이나는 아시아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리슨이 3명의 흑인을 통해 세계를 대표함으로써 피콜라의 불행은 흑인사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각 세계의 인종적, 경제적으로 소외당하는 하층민 여성들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배계급에게 무시당하는 하층민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세 명의 창녀들은 기존의 지배 질서에 대한 전복성을 대표한다. 기존의

21) Gillan, Jennifer. “Focusing on the Wrong Front: Historical Displacement, the Maginot Line, and *The Bluest Eye*.” *African American Review*, (Summer, 2002): 6-22.

가치를 거부하는 그녀들은 제럴다인과 다르게 자신의 흑인성을 내세우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떠한 남성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며 주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폴린과도 다르게 백인의 기득권에 종속되지 않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되어 안정된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김현숙²²⁾은 창녀라는 공동체를 제시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백인과 흑인의 차별을 두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전복적인 효과를 지적한다.

모리슨은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물을 통해 지배적인 질서에 대한 전복의 꿈을 부여하고 있다. 그 힘은 특히 기존 사회의 가치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차이나, 폴란드, 마리 양등 창녀들을 통해 암시된다. 이들은 일부일처제의 가부장제 질서의 바깥에 존재하므로 일단 남성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던 역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백인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들이 백인이나 흑인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을 “부끄러움이나 변명 혹은 차별 없이”(47) 미워한다는 것은 남성 속에서 백인과 흑인을 구별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김현숙 100)

안타까운 사실은 흑인 공동체로부터 소외·주변화 된 세 명의 창녀들만이 피콜라를 아끼고 감싸주며 사랑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 창녀들은 피콜라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받아준 유일한 사람들이다. 한 겨울 양말을 신지

22) 김현숙, 「백인의 시선 아래에 선 검은 몸: 『가장 푸른 눈』, 『현대영미소설』, 제 7권 2호 (2000): 83-103.

많은 피콜라를 걱정해 주고 재미나는 별명으로 그녀를 불러 준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피콜라를 사랑했고 피콜라 역시 그녀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경험들을 어린 피콜라와 나누려고 했다. 이처럼 피콜라는 흑인 사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관심을 흑인 사회에서도 배척을 받는 최하계층인 창녀들에게서 받아본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사회의 관습이나 법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부랑자들과 소외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뿐 이었다. 진실로 피콜라에게 필요했던 경험담이나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3명의 창녀) 무법의 남성들과 무례한 여성들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들을 활기차고 서투르게 말해준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 어떻게 해야 엄마와 아빠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는지.

They (three gargoyles) can tell her stories that are breezy and rough about lawless men and audacious woman. But they can not teach her what she want she wants most to now: how to be loved by a mother and a father, by a community, and by a society. (Furman 192)

이들은 흑인 공동체에서도 소외된 존재이지만 자신들의 자아를 잃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는 인물들로 피콜라를 감싸주지 못했던 흑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랑과 공동체적 형제애를 가지고 있는 집단인 것이다. 안타깝

게도 이 세 명의 창녀는 피콜라를 받아준 유일한 흑인 공동체이지만 그들은 피콜라가 가지게 될 사랑이라는 감정과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흑인 공동체에서 가장 주변화 된 세 명의 창녀들이 할 수 있다면 흑인 공동체 사회 전체가 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긍정적인 흑인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희망은 맥티어 가족 (MacTeer's family)의 사례이다. 맥티어 가족들은 자기 보호본능 주체성과 백인 또는 외부로부터 오염을 걱정하며 토마스가 지적한 브리드러브 가정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과 사랑이 기반 되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맥티어 가족들은 적어도 자신의 흑인성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의지와 의식이 있는 가정인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부터 모리슨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맥티어가의 클라우디어는 피콜라에 비해 자신과 자신의 흑인성을 억압하는 지배적인 가치관에 대응함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다. 클라우디어는 흑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콜라와 프리다가 셸리 템플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의문을 가진다. 또한 그녀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가 모린을 숭배하는 것에도 반발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같은 반 친구인 모린이 자신과 피콜라를 향해 못생겼다면 소리치고 달아날 때 클라우디어는 피부가 좀 더 검은 흑인인 자신이 모린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그녀에게 분노를 자아낸다.

만약 모린이 예쁘다면,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예쁘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 아이보다 못하다는 뜻이 된다. 더 착하고 똑똑하지만 훨씬 못하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인형을 쥐어뜯을 수는 있었지만 부모들, 아줌마들의 상냥한 목소리는 어찌지 못했다.

If she(Maureen) was cute - and if anything could be believed, she was-then we were nit. And what did that mean? We were lesser. Nicer, brighter, but still lesser. Dolls we could destroy, but we could not destroy the honey voices of parents and aunts.
(74)

클라우디어는 혼혈아인 모린의 계급 및 흑인차별적인 놀림을 강하게 본능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주체이며 이는 자신의 친구인 피콜라가 모린의 놀림에 날개를 접은 새처럼 움츠릴 때 피콜라의 고통에 화를 내고 그녀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어 하는 강한 자의식을 가진 흑인 소녀로 성장한다. 그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우선 사랑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서 찾을 수 있다.

브리드러브 가족은 자신의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흑인이고 못생긴 딸을 무시해 버리고 사랑을 주지 않는 브리드러브 부인과 늘 술 취한 아버지로 이루어진 반면에 맥티어 가족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루어졌다. 늘 싸움이 잦고 대화와 애정이 없었던 브리드러브 가족과는 다르게 맥티어 가정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하는 대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세계의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맥티어 가족과 브리드러브 가족과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같은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명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남고 또 다른 한명은 파멸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간의 짙은 사랑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리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서 피콜라는 맥티어 가정에서 머물러야 했다. 그곳에서 맥티어 부인은 잠시나마 피콜라의 대리모역할을 수행한다. 맥티어 부인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피콜라를 가엽다고 하면서 그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의식과 원망을 퍼붓는다. 아이의 잘못이 아닌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망할 놈의 출리는 이틀 전에 출옥했는데 아직 애 새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가봐.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니.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그 애 엄마도 마찬가지로. 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That old trifling Cholly been out of jail two whole days and ain't been here yet to see if his own child was live or dad. She could be dead for all he know. And that mama neither. What kind of something is that? (25)

또한 피콜라는 어머니가 아닌 맥티어의 손길에서 첫 월경을 경험한다. 맥티어 부인은 피콜라를 자신의 아이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보호하고 같은 여

성으로서 첫 월경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주고 안아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피콜라가 맥티어 부인에게서 성장했다면 쓰레기를 뒤지면 미쳐버린 피콜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도 똑같아 내 새끼든 아니든” . . . 엄마는 프리다와 피콜라를 끌어안았다. 언니와 피콜라의 머리가 엄마의 배에 파묻혔다.

“You too!” she said. “Child of mine or not!” . . . she(Mrs. MacTeer) pulled both of them(Claudia and Pecola) toward her, their heads against her stomach. (31)

맥티어 가족의 서로에 대한 보호본능은 클라우디어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가난하지만 언제나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석탄을 주워 가족을 추위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맥티어 가정에 세들어 사는 헤리(Henry)가 클라우디어의 언니 프리다(Frieda)를 성희롱했을 때 그들의 부모가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헤리를 향해 총을 들고 따라가는 장면은 맥티어 가족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록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딸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가난하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어주는 가정에서 자란 클라우디어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그녀는 흑인으로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

는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적대적으로만 보였던 부모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게 된다. 거친 손길이지만 아픈 자식을 쓰다듬고 약을 먹여주던 자신을 보호하고 감싸주려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이제 어른이 된 클라우디어는 가을을 생각할 때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돌보아 주던 어머니의 손길을 생각한다.

그것은 생산적인 고통, 열매를 맺기 위한 고통이었다. ‘알라가 시럽’처럼 진하고 거무스름한 사랑이 창문 틈새로 천천히 움직였다. . . . 그래서 나는 가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누군가의 손길을 떠올린다.

it was a productive and fructifying pain. Love, thick and dark as Alaga syrup, eased up into that cracked window. . . . So when I think of autumn, I think of somebody with hands who does not want to die. (12)

맥티어 가족은 그들의 딸에게 그들의 흑인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르쳤기 때문에 클라우디어는 자신의 흑인성을 사랑하고 자신의 피부색에 편안함을 가지게 된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푸른 눈을 가진 백인인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녀는 지배사회가 지닌 무가치한 시선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한다.

설리템플을 갈망하고 메리제인을 닮고 싶어 하는 피콜라와는 다르게 클라

우디어는 금발머리와 푸른 눈동자가 왜 아름다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다. 그녀는 백인의 미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백인을 모델로 삼은 인형의 아름다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형은 자신이 받고 싶었던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에 자신에게는 없는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형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나는(클라우디아) 그 인형을 좋아할 수는 없었지만, 온 세상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내기 위해 그 인형을 검사해 보기로 했다.

I (Claudia) could not love it. But I could examine it to see what it was that all the world said was loveable. (20-21)

클라우디아는 자기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것’ (it)을 사랑하기 보다는 ‘그것’으로 상징되는 그 인형의 모습에 낯설어하고 해체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인형을 부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백인 소녀들이 지닌 마력의 비밀을 찾기 위해 인형처럼 분해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다. 이처럼 그녀는 백인의 가치관에 동화되거나 잠식되지 않으며 자신의 흑인성을 사랑하며 보존하려는 노력한다. 그녀는 오히려 크리스마스 선물로 물건 대신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 한다. “무릎 위에 라일락을 가득 올려놓고 할머니의 부엌에서 낮은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가 켜주시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싶어요” (22). 그녀가 느끼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른의 가치에서 이쁘다고 생각되는 푸른 눈의 백인인형이 아니라 흑인의 공동체의식을 나타내며 그 속에서 사랑과 웃음을 나누고 싶어 한다. 이러한 클라우디어의 강한 면모로 인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백인 중심의 문화가치를 피콜라가 여과 없이 수용하여 자기모멸에 빠져 파괴되는 반면, 클라우디어는 저항하여 자기정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발전시킨다. 클라우디어가 흑인공동체 로레인의 대다수 흑인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백인지배문화에 물들지 않고서 흑인으로서의 자기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가족간의 유대와 클라우디어 자신의 서술의 힘이다. (심재민 180)²³⁾

모린이 피콜라에게 “난 예뻐! 그리고 너희들은 못 생겼어! 검둥이들. 못생긴 검둥이들”(73)라고 소리쳤을 때 클라우디어의 반응은 그녀가 흑인으로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자신들의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모린의 말에 피콜라는 아무런 저항 없이 모든 것을 내면화한다. 반면에 클라우디어는 화를 내며 모린이 하는 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대항하며 더 나아가 모린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위축시키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며 피콜라의 고통에 피콜라보다 더 큰 분노를 느낀다.

23) 심재민, 「Toni Morrison의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 연구-구술화법과 내면언어를 통한 정체성의 추구」. 『중앙영어영문학』 (제3호, 1998): 161-188.

이러한 강한 자아보호 본능이 있는 클라우디어는 과거의 회상을 통하여 올바른 흑인 공동체의 책임성회복이라는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피콜라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심은 금잔화가 피지 못하고 아이가 사산된 것이 피콜라가 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1941년 가을에는 금잔화가 피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금잔화가 피지 않은 것은 피콜라가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There were no marigolds in the fall of 1941. We thought, at the time, that it was because Pecola was having her *Father's* baby that the marigolds did not grow. (5)

이제 어른이 된 클로어디아는 피콜라의 불행 자체만이 아니라 그 불행의 근원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다. 금잔화가 피지 못한 이유는 금잔화를 심은 땅 자체의 불모성 때문임을 인식한다. 즉, 피콜라를 둘러싸고 있던 흑인 사회가 그녀의 아이를 저주 했으며 희생양으로서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내가 씨앗을 너무 깊이 심었던 것이다. 그 땅이 불모지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I had planted them too far down in the earth. It never occurred

to either of us that earth itself might have been unyielding.(5)

피콜라의 분열은 그녀를 메말라 죽게 한 흑인 공동체의 책임의식의 실종에서 기인한 것이다. 흑인 공동체의 구성원 중 그 누구도 미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거나 그녀의 고통에 참여하는 행동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클로우디어는 피콜라의 처지에 슬픔을 느끼며 공동체의 사람들도 피콜라를 위해 함께 슬퍼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슬픔을 나누지 않았기에 그 슬픔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즐기는 듯했으며, 충격을 받고, 격분을 하거나, 심지어 그 이야기에 흥분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나 ‘가없는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 오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I believe our sorrow was the more intense because nobody else seemed to share it. They were disgusted, amused, shocked, outraged, or even excited by the story. But we listened for the one who would say, “Poor little girl,” or, “Poor baby,” but there was only head-wagging where those words should have been. (190)

흑인 공동체의 폭력성은 피콜라의 불행에 관과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더욱 잔인한 폭력성은 흑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피콜라의 불행 속에서 자신은 그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느끼며 같은 흑인 동족을 차별화하고 구별했다는 점이다. 이제 클라우디어는 흑인 공동체 전체가 피콜라에게 가한 폭력을 성숙한 의식으로 나타낸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쏟아버린 쓰레기들 그리고, 그 아이가 그토록 집착한 쓰레기들.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은, 처음에는 모두 그 아이의 것이었고, 나중에는 그 아이를 통해 받은 것이었다.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아이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나서 아주 건전해졌다고 느꼈다. 못생긴 그 아이를 짓밟을 때 우리는 아주 아름다웠다. 그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우리의 장식물이 되고, 그 아이의 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으며, 그 아이의 고통은 우리를 건강하게 빛나게 했고, 그 아이의 어색함은 우리가 유머 감각이 있다고 믿게 했다. 그 아이의 주저하는 말투는 우리가 유창하다고 믿게 했다. .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숫돌 같은 그 아이를 보며 다듬었고, 그 아이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성격을 강인하게 다졌으며, 힘의 환상에 빠져 나른해져 있다.

We gave her all of our waste which we dumped on her and which she absorbed. And all of our beauty, which was hers first and which she gave to us. All of us - all who knew her - felt so wholesome after we cleaned ourselves on her. We

were so beautiful when we stood astride her ugliness. her simplicity decorated us, her guilt sanctified us, her pain made us glow with health, her awkwardness made us think we had a sense of humor. . . . We honed our egos on her, padded our characters with her frailty, and yawned in the fantasy of our strength.(205)

클라우디어는 피콜라의 분열을 막아주지 못한 자신을 포함한 ‘우리’(we)의 책임을 반성한다. 그리고 자신도 피콜라의 불행을 방관함으로써 그녀의 불행에 일조했다는 것을 시인한다. 클라우디어는 공동체가 피콜라의 비극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단 한명이라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해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반성은 비록 피콜라의 불행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책임의식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주변 사람의 삶에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느끼도록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클라우디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만약 피콜라와 같은 아이를 발견한다면 지금의 흑인 공동체와는 다르게 보호해주고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피콜라는 그녀의 주변에서 둘러 싸여 있는 폭력성에 의해서 희생되고 말았지만 모리슨은 피콜라의 불행을 처음부터 지켜보았고 함께 했던 클라우디어 통해서 바람직한 흑인 공동체의 모습과 흑인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2. 흑인사회의 미래

모리슨은 자신의 작품 『가장 푸른 눈』에서 어린 피콜라의 불행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모리슨이 클라우디어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다시 되살리는 것은 그 과거에 대해 반성과 이해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왜 자신들에게 피콜라와 같은 절망의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해석하는 작업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흑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라봐야 하는 독자의 의무이자 모리슨 소설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결국 모리슨은 모든 양상을 분석해서 소설에 정리하고 있다. 『가장 푸른 눈』은 흑인사회를 균형 있게 좋은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 양쪽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모리슨은 피콜라의 비극의 원인을 흑인사회와 그 구성원에게서 찾는다. 또한 그 해결책과 긍정적인 대안 역시도 흑인사회 내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한다.

우선 모리슨은 경제적 여건과 가족 구성원들의 유사한 두 가정인 맥티어 가족과 브리드러브 가족을 비교·대조하고 있다. 피콜라의 부모인 브리드러브 부부는 외적인 백인문화의 억압적 영향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과정에 가정이 붕괴된다. 브리드러브 부부는 자식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로부터 서서히 주변화 되어간다. 이는 흑인사회에서의 전면적인 소외로 이어지면서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사랑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브리드러브 부부는 자신들의 자아를 형성하고 흑인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살게 된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부모를 보고 자라온 피콜라 역시 사회로부터 소외되면서 그 사회의 희생자로 전락된다. 브리드러브의 가족을 맥티어 가족과 비교·대조 해보면 피콜라에게 끼친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맥티어 가족을 브리드러브 가족과 구분지어 주는 근본적인 차이는 맥티어 가족은 흑인인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들의 흑인 정체성을 지키고 자긍심을 지켜나감으로써 백인 문화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는다. 모리슨은 브리드러브 가정과 맥티어 가족을 비교·대조를 통해서 피콜라의 비극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맥티어 가정을 통해서 건전한 흑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또는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장 푸른 눈』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력을 가진 기독교인의 혼혈인인 제럴다인과 소프헤드에 관한 분석이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어린 피콜라를 이해하여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내의 빈곤층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파괴적인 영향을 가장 잔인하게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보다 가난한 하층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백인의 주류사회에 들어가려는 부질없는 노력을 한다. 모리슨은 사회의 계몽적인 역할을 오히려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가장 주변화된 최하계층에서 대안과 사랑의 실천 사례를 찾는다. 맥티어 부인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세 명의 창녀를 통해서 피콜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모리슨이 창녀들을 공동체와 대조시키는 까닭

은 이러한 사랑과 흑인 정체성 의식은 교육 또는 경제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위적인 예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인종의 차별적인 영향을 비교해 볼 때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백인은 야코바우스키, 피셔 가족 등이다. 그들은 「덕과 제인 이야기」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가장 유사한 삶이 제시되는 백인들이다. 하지만 소설에서 이들은 흑인소녀인 피콜라의 불행을 조장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인종간의 차이로 인한 드문 상호관계로 인하여 피콜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더 무섭고 파괴적인 힘은 백인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면화한 흑인사회에 의한 차별이다. 피콜라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곳이 흑인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배척을 받았을 때는 더욱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콜라는 백인에 의한 차별보다는 백인 주류사회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고 세련된 외모의 혼혈인 제럴다인으로부터의 배척, 학교 친구들의 따돌림, 심지어는 흑인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를 당한다. 이러한 공동체내의 차별은 피콜라에게 더욱 파괴적인 힘을 가진다.

마지막은 폭력성의 정신적인 측면과 물리·육체적인 사례들의 비교이다. 학교 친구 주니어는 자신의 집에서 피콜라에게 고양이를 집어 던지며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또한 피콜라의 아버지 출리는 왜곡된 사랑으로 딸을 근친 강간함으로써 육체적인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육체의 분열보다

더욱 비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심리적인 분열이다. 모린 필이 피콜라에게 던진 못생겼다는 말에 그녀는 자신의 몸이 녹아드는 것처럼 무력해진다. 제럴다인은 자신의 흑인 정체성의 발현이 두려워 어린 피콜라를 자신의 집에서부터 추방시키며 폴린은 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못생긴 아이로 정의내리고 자신의 흑인 정체성과 함께 쓰레기더미로 쓸어내어 버린다. 사이비 주술사인 소프헤드는 결국은 피콜라의 최종적인 정신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이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심리적 정신적 폭력으로 피콜라가 회복되지 못하는 과멸을 가져오고 마침내 스스로 '푸른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고 혼자만의 세계에 들어가 거리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분열된 삶을 이어나갈 뿐이다.

필자는 모리슨이 『가장 푸른 눈』을 통하여 흑인 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미 제시해주고 있다고 믿는다. 작품 속에서 피콜라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던 세 명의 창녀집단을 통하여 흑인사회의 잠재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맥티어 가족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가족간의 사랑과 보호 본능적인 의지가 있어서 피콜라와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르치는 가정의 힘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소설속의 피콜라의 분열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학교 친구였던 나레이터인 클라우디어는 어른이 된 지금도 피콜라의 아픔에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어 주지 못했던 사실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 모리슨은 그녀의 처녀작 『가장 푸른 눈』을 읽는 독자에게 클라우디어와 같은 마음으로 피콜라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노력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제시한다.

Works Cited

- 김애주, 「토니 모리슨의 『푸르디푸른 눈(The Bluest Eye』: 흑인 서술의 미학의 한 보기」, *Dongguk Review*, (No.24-25, 1996): 109-28.
- 김현숙, 「백인의 시선 아래에 선 검은 몸: 『가장 푸른 눈』」, 『현대영미 소설』, 제 7권 2호, (2000): 83-103.
- 신재민, 「Toni Morrison의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 연구-구술화 법과 내면언어를 통한 정체성의 추구」. 『중앙영어영문학』 제3호, (1998): 161-88.
- 태혜숙, 「미국 문화의 이해」. 증명, 1997.
- 이수현, 「『가장 푸른 눈』: 흑인 자아의식의 비극적 양상」, 『한국현대 영미소설학회』, 제9권 1호,(2002): 195-218.
- Awkward, Michael. “The Evil of Fulfillment: Scapegoating and Narration in *The Bluest Eye*.”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 Davis, Cynthia. A “Self, Society, and Myth in *Toni Morrison’s Fiction*.” *Contemporary Literature* 24, No. 3 (Summer 1982): 323-42.
- Demetrakopoulos, Stephania A. “Bleak Beginnings: *The Bluest Eye*”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 Duvall, John N. “Naming the Invisible Authority: Toni Morrison’s covert *Letter to Ralph Ellison*.” *Studies in American Fiction* 25,

no. 2(Autumn 1997): 239-49.

Furman, Jan. "Black Girlhood and Black Womanhood: *The Bluest Eye* and *Sula*."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Gillan, Jennifer. "Focusing on the Wrong Front: Historical Displacement, the Maginot Line, and *The Bluest Eye*." *African American Review*, Summer, (2002): 6-22.

Guerrero, Ed. "Tracking 'The Look'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Toni Morrison's Fiction*. Ed. David L. Middleton.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7.

Klotman, Phyllis R. "Dick-and-Jane and Shirley Temple Sensibility in *The Bluest Eye*."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Volume 13, Issue 4.(Winter, 1979): 123-25.

Peach, Linden. "The Bluest Eye."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Malmgren, Carl D. "Text, Primers, and Voices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Critique*, Spring, Vol. 41, No. 3, (2000): 251-62.

Mbalia, Doreatha D. "*The Bluest Eye*: The Need for Racial Approbatio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Miner, Madonne M. "Lady No longer Sings the Blues: Rape, Madness, and Silence in *The Bluest Eye*" *Conjuring: Black Women*,

- Fiction, and Literary Tradition*. Ed. Marjorie Pryse and Hortense J. Spillers. Bloomington: Indiana UP, (1985): 76-91.
- Morrison, Toni. *The Bluest Eye*. New York: A Plume Book, 1993.
- . “Afterword to the 1994 Edition of *The Bluest Eye*.”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 Peterson, Nancy J. *Toni Morrison Critical and Theoretical Approache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 Thomas, Leester. “When Home Fails to Nurture the Self: The Tragedy of Being Homeless at Home.”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 Vickroy, Laurie. “The Politics of Abuse: The Traumatized Child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and *Marguerite Duras*.”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 Willis, Susan. “Eruption of Funk: Historicizing Toni Morriso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1999.
- Williams, Lisa. *The Artist as Outsider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and Virginia Woolf* London: Greenwood Press, 2000.

ABSTRACT

Analyzing the Black Community and the Destruction of Pecola Breedlove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Park, Meesu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ni Morrison's first novel, *The Bluest Eye*, depicts a tragic story of a little black girl named Pecola Breedlove. Pecola's struggle to find and complete her own identity is relentlessly thwarted by her immediate surrounding community: family, school and friends, commercial district and various neighbors.

Although Pecola is not alone, her story stands apart in that it offers the reader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how” and “why” Pecola succumbs to silence and madness after the rape. Morrison is not interested in certain characters nor is she invested in supplying the readers with a cleansing experience that sentimentally victimizes Pecola.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to outline how Morrison uses Pecola’s tragic example to educate readers about the ongoing evil cycle that destroys Pecola in the novel. My study sets out to expose how Pecola’s self-esteem and black identity is destroyed not by a white male but by the black community in which she lives.

This paper thus aims to show “how” and “why” the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Pecola can function to alert readers of this evil cycle. Becoming aware of the mechanics and process of such a destructive cycle, we are able to actively deter any further injustices, or at least able to recognize and become conscious community members.